

100세 장수시대 & 죽음의 병 상화: 퀴블러-로스, 임 종의 5단계 이론

추홍희 지음

미국의 정신과 의사 퀴블러-로스는 “죽음과 임종 On Death and Dying” 책에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는 과정에는 ① 부정과 고립 denial and isolation ② 분노 anger ③ 타협 bargaining ④ 우울 depression ⑤ 수용 acceptance - 5 단계 five stages의 과정이 진행되는 임종의 5단계설 Five Stages of Dying을 제시했다.



“사람이 임종하는 모습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항상 남아 있다.” “How people die remains in the memory of those who live on.”- 시슬리 손더스

우리는 이렇게 슬픔이 짓누르는 죽음의 엄숙성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느낀 것 그대로를 말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 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결코 알아낼 수도 없거니와 또 그만큼 오래 살기 힘들지 도 모릅니다.¹ (셰익스피어, 리어왕)



몽크의 이 그림은 병실에서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강조해 보여준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죽음은 필연이라는 것을 다들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직면하게 되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 또한 인간의 필연적 숙명이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¹ “We must remember the gravity of this sad day. We should speak what we feel, not what we ought to say. The oldest one suffered the most. We young ones will never see as much as he has seen, or live as long.”

100세 장수시대 & 죽음의 병상화:
 퀴블러-로스 임종의 5단계 이론

차례

Ch		제목	pp
1.	병상화	서문	
		100세 장수 시대와 죽음의 병상화	
		까막 딱따구리	
2.	프로세스	죽음과 임종의 뜻	
		죽음에 대한 의학적 개념, 법적, 철학, 윤리학, 신학적 개념	
		뇌사 판정 기준	
		왜 하버드 판정 기준이 유명한가?	
3.		퀴블러-로스 “임종의 5 단계 Five Stages of Dying” 이론	
	1단계	1. 부정과 고립 단계 denial and isolation	
		병원과 소음	
		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죽는 것으로 오해하게 될까?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통증의 기간	
		의사, 간호사의 전문가 직업 윤리 의무 충돌	
		행정부 기관이 결정하는 치매 관리 체계 문제점	
	2단계	2. 분노 단계 anger	
		왜 감금당한다고 생각할까?	
		사람의 분노 감정-“왜 하필 나인가?”	
	3단계	3. 타협 단계 bargaining	
	4단계	4. 우울 단계 Depression	
		반응성 우울증 reactive depression	
		“예비적 애도 반응 Preparatory Grief”과 “우울증 Depression”	
		사별의 슬픔을 미리 준비하는 예비적 애도 반응	
		임종의 신호-머리칼을 쥐어뜯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나?	
		선입관, 편견, 무지	
	5단계	5. 수용 단계 acceptance	
		슬픔, 상실감, 죄의식 등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 제공		
		임종 전 마지막 마음을 정리하는 단계		
		왜 사람들은 용서를 자발적으로 구하지 못하는가?		
		내가 나눈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좋은 죽음 good death"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은 사실일까? 환타지일까?		
		죽음에 대한 개념-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턱-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평화로운 임종의 모습과 고통 없는 죽음		
		말기 진정 palliative sedation		
		프로이트 “삶충동 Life Instincts”과 “죽음충동 Death Instincts”		
희망		6. 희망의 단계 Hope		
		희망의 창문은 언제 닫히는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는 힘		
4.	임종	임종의 순간		
		마지막 임종의 병상에서 어머니를 위한 기도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		
		어머니의 유언		
		죽음의 때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있는가?		
		사람의 생물학적 육체 기능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가?		
		임종의 징후를 미리 아는 방법		
		임종을 확인하는 방법		
		임상적 죽음의 판정-심폐사		
5.	성사	병자성사 The Catholic Sacrament of Anointing of the Sick		
		병자성사 예식		
6.	비판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에 대한 비판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찰스 코르 Corr의 죽음의 5단계설 비판		
7.	평가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퀴블러-로스 죽음의 5단계 이론이 주는 혜택		
		내가 좀 더 빨리 죽음의 5단계 이론을 알았더라면?		
		왜 평소에 병문안이라도 자주 드리지 못했던가?		
8.	의사-	병원은 왜 가족 면회를 제한하는가?		
	간호사	생명을 “살리는 의사”와 “죽이는 의사”		
		병 주고 약 주는 의사?		
		진실의 위대한 힘-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9.	풍수	풍수지리설의 가장 결정적인 흠결은 무엇인가?		
		묘지와 풍수지리설		
		명당자리가 따로 있다면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는가?		
		풍수지리설의 치명적인 요소-동기감응론		
10.		영원한 침묵		

100세 장수시대 & 죽음의 병상화 시대: 퀴블러-로스 임종의 5단계 이론

서문

미네르바의 부엉이

사람들은 미리 앞서서 이성적인 대처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마침내 파국적인 결말을 맞고서 그때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의 약점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나서야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헤겔은 말하지 않았을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² 역사의 운동 법칙을 찾아낸 헤겔이 역사는 현실이 무르익을 때 비로소 관념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에 맞서서 나타난다고 말했는데 그가 삶은 다만 인식되는 것뿐이라는 의미로만 말했을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고 지나간 자리를 통해서 바람의 길을 알듯이, 진리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선행하기 보다는 그 일이 모두 다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인식되는 것 같다. “어쨌든 철학적 인식은 항상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 철학이 이성의 회색에 회색을 덧칠할 때 인생의 한 모습은 이미 지난 것이 되어 있을 뿐이다. 회색에 회색을 덧칠하면 그 인생의 모습이 다시 젊음을 찾지 못하는 것이며 단지 인식할 뿐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설명한 헤겔의 메타포어를 우리 삶에 인용한다면 우리가 현재 복잡한 세상사에 얽혀 그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확한 인식과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지나가고 난 뒤 냉철한 분석과 냉정한 시각으로 다시 전체적 조망 (파노라마, 부엉이 눈으로 보는 것)을 할 때에만 비로소 진실과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 번 밖에 없는 경험”

이 글은 향년 87세로 선종하신 (카톨릭 신자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善終³이라고 말한다)을 필자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임종 과정에서 느낀 사실과 생각을 퀴블러-로스의 “임종의 5단계설”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쓴 글이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한 번 밖에 없는 경험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이다. 한 번 밖에 없는 죽음의 일회성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미리 갖추기가 쉽지 않는 영역인 것 같다. 또 이 부분에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근하기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를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죽음과 임종의 과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정보 지식 도서는 많지 않음을 알게 된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장례회사 등 소위 “D(죽음) 산업”계에서 나온 정보들이 대부분이어서 원천적으로 D죽음 산업계의 이해 측면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죽 자기 이익 추구 관점에서 쓰여진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다시 걸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죽음과 임종의 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글은 필자가 지난

² “Die Eule der Minerva beginnt erst mit der einbrechenden Dämmerung ihren Flug.”

³ 불교에선 ‘열반’에 들다, 기독교에선 ‘소천’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뜻으로 ‘소천’이라고 말한다.

엄동설한에 어머님⁴을 여의고서 격심하게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글쓰기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 과정에서 쓴 필자의 개인적인 단상이다. 이 글을 쓴 까닭은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이다.

1.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 가는 과정-not an event but a process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의 지배적인 영향이 크게 스며들어 있어서 죽음을 단번의 사건으로써 이해하고, 따라서 사건이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야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슬픔과 애도의 극복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통적인 인식은 영미인들이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는 태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동안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음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인 생각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이런 태도로는 그동안 크게 변화하고 발전된 한국의 새로운 상황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된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퀴블러-로스의 임종의 5단계 과정 이론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나 그 가족들 그리고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 요양병원 재가요양원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은 사람들 다수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 이유는?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 집에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살던 자기 집에서 평소와 같이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통계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자기 의사와는 반대로 대다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병원이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약 75%이상에 달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기껏 20-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⁵ 누군들 아파서 병원을 굳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또 통계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 다수는 자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지만 그런 기대하고는 달리 이렇게 대개는 병원에서 운명한다.

통계로 보면, 병원이 생명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관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병원에 영안실이 마련되고 장례식까지 진행할 수 있어, 장례식은 병원에서 상업적 장의사(상조회사)가 일사천리로 맡아서 진행한다.

왜 기대하고는 달리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그 요인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시대가 변했다. 고령화 시대, 장수 시대,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크게 늘어난 평균 기대 수명을 보라. 의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기대수명 average life expectancy이 2010년 현재 78세 (남자 75세 여자는 82세)이다. 일본의 경우 83세 (남자 79세, 여자 87세)에 이른다. 100세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사는 인구의 숫자는

⁴ 돌아가신 사람을 지칭할 때 선先 자를 쓰는데, 남에게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지를 일컬을 때 선친先親이라 부르고,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이룰 때는 선비先妣 또는 선자先慈라 한다. 살아계신 자기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는 자당慈堂이라 호칭한다.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는 선대부인 先大夫人이라 호칭한다.

⁵ <http://www.cdc.gov/nchs/releases/98facts/93nmfs>.

약 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

장수 시대 longevity 도래했으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오래도록 살게 되어 고령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장수 시대의 결과 오랜 사는 만큼 노인병을 앓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는 사실 즉 장수 시대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장수 시대가 산업 사회 발전의 결과물이라면 그것의 원치 않는 부수물 또한 생겼는데 그것은 노인성 질병을 겪는다는 점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급사가 거의 사라진 대신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인류 역사상 현대 이전까지는 전염병, 질병, 자연 재해 재난 사고로 급사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금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급사의 경우가 현저히 줄어 들었고, 연명치료 또한 크게 늘었다. 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사로서의 죽음의 개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는 의학이 죽음을 정복한 시대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한은 오로지 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의 역할은 병원이 대신 행사한다. 평균 기대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은퇴 이후 죽음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노후 생활을 누리고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다수가 죽음을 맞이할 때쯤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발달된 최신 의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오늘날 병원에 실려 가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죽음과 연관된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약 100년 전 릴케가 파악한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병원으로 들어 온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서는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릴케의 이런 표현과 같이, 사람들은 살려고 병원에 들어오지만, 대개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영미국 등의 자료를 보면 오늘날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큐블러-로스는 “병원으로 실려가는 과정이 죽음을 향한 첫 번째 사건 the trip to the Hospital as the first episode in dying”이라고 본다.⁶

사람의 일이란 어느 한 순간의 결단에 의해 갑자기 일어난 것은 거의 없으며 지나고 보면 장기간에 걸친 하나의 투쟁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혀 준다. 임종 또한 마찬가지이다. 죽음은 인간의 의지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거치는 일생의 과정과 같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진다. 사람들이 대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 죽음의 병원화 시대에서 임종은 유성처럼 한 순간에 불타고 끝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2.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할 여유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하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학의 발전이 눈부시지만 아직은 죽음을 완전 정복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빈발했던 재난사고사처럼 갑작스럽게 죽는 급사는 많이 사라졌다. 지금은 최소한 죽음을 통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것이 시사해주는

⁶ Kübler-Ross, E., “On Death and Dying”, NY: Scribner Publishers, 1969, at 19.

바는 임종환자나 가족들은 최소한 미리 대처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죽음이 서서히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임종환자나 가족들은 “좋은 죽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죽음을 일회성 사건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슬픔과 애도는 죽음을 곧 잊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프로이트 심리학에 가까운 전통적인 생각을 지속하는 한 좋은 죽음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죽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죽음을 확인하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들의 세계에서 분리 처리하는 소각 과정으로써 이해한다고 해서 죽음이 소멸되고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이제는 임종에 앞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 때 죽음의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고치지도 못할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치료를 고집하는가?

질병을 고치는 일은 병원이 맡고 있고,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다.⁷ 그런데 그 중에는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람들이 병원 치료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도 의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에 있는 것 같다. 비록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크겠지만 남은 가족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외부에서 죽어진 것처럼 죽음도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사람들은 자연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질병이 확인되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분노를 나타내지만 죽음에 이르게 된 질병은 받아들이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할 때 죽마고우 크리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탈출하여 삶을 연장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충고할 때 사용한 논리하고 같다. 그 때 충고는 만일 소크라테스가 죽으면 부유한 친구들이 있어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돈 때문에 그 죽음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여론이 일어날 텐데 친구들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더 오래 살아 남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심리적 만족감에서 있다고 말할 때 물론 그 원래적 동기는 자신의 이기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의 동기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전부라면 어느 가족인들 많은 돈을 써가며 병원을 찾으려고 하겠는가? 아담 스미스가 파악한대로,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에는 이기심, 이타심, 양심이 있는 것 같다. 최신의 의학 기술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수궁하면서도,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해보려는 생각을 밀고 나가는 이유는 이러한 3가지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 본성에 속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는 유명한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양심은 인간 본성에 속한다는 점을 밝혔다.

⁷ “Lives should be saved if they can be saved by a hospitalization.”

3. 내가 퀴블러-로스의 5단계 이론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시 구절이다. 시인은 꽃이 피려고 천둥이 치고 먹구름 아래 우는 고통의 의미를 말했지만, 나는 어머님께서 영원한 평화와 안녕을 얻기 위해서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만사 지탄! 나는 그 의미를 어머님을 여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미신 같은 생각이라고 거부했지만 난생처음으로 밤마다 내 몸에서 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고, 발바닥은 뜨거운 송곳이 찔려오듯 통증이 심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천둥처럼 강타할 때면 나는 마음을 견디질 못하고 산을 찾아 등산을 갔다. 지나고 나서 후회만 막심하지만, 그 때 산으로 가서 마음을 달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계신 어머님의 얼굴을 찾아 뵙고 어머니의 발과 손을 마사지해 드렸어야 울았던 것이다. 내게 보낸 하늘의 외침은 뚜렷하게 손으로 꼬집어내서 감축할 수 있을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들은 목소리만큼 뚜렷하게 글로써 표현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님께서 곧 돌아가실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무언가 미신적인 것이 내 심장을 두들기곤 했다. 유독 밤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가 되었고, 또 사실 어머님 병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머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건지 어머님께서 음식이라도 잘 드시고 있는지 살펴보고픈 내 마음 속의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 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다. 어머님께서 어제 밤은 어떻게 지냈는지 다음 날 아침 살펴보고픈 마음의 충동이 일어남은 매일 민방위 훈련의 방송처럼 잠깐 들리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소방서 구급차가 불난 화재건물에서의 그칠 줄 모르게 끊임없이 울려대는 비상사이렌 소리로 경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난 어머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 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착각해서, 어머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한 결과 어머님의 병문안도 자주 하지 못했다.

어머님의 병세가 위중할수록, 어머님께서 얼마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록, 제가 어머님의 병문안을 자주 갔어야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 이유 하나는 나는 사람이 살만큼 살아서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는 엄연한 자연의 법칙인 어머님의 죽음을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 받아들이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어머님 살아 생전에 어머님을 단 한번만이라도 기쁘게 해 드릴 일 하나라도 끝내어서 어머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과욕을 부린 탓이었다. 엄마 젖 먹던 힘으로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어머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밤새 일에 매달렸다. 어머님께서 얼마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무언가 미신적인 메시지가 그토록 제 머리 속으로 들려왔지만, 그럴수록 나는 항상 하늘의 메시지를 잘못 읽었던 것이다. 병원에라도 자주 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외침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잘못된 결과였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닥칠지도 모른다는 가장 평범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짧은 내 혼자만의 생각에 매달려 거짓 희망에 내 자신을 속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어머님께선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영원히 먼 길을 떠나고 말았으니, 내가 이제 산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늦가을 야산에 올라 감나무 가지를 쳐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未覺池塘春草夢인데 階前梧葉已秋聲이라, 연못에 봄풀이 꿈을 깨기도 전에 뜰 앞에 오동나무 잎이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지막 잎새마저 지고 동토가 되어 버렸다. 세월도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뵈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원지 아픈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어느 날 같으면 오후 늦은 시간 대에 큰 산을 올라 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데, 그날은 묘하게도 가지산을 찾았다. 해가 짧은 겨울, 마음으로는 땅거미가 곧 내릴 것 같은 오후 늦은 시각에 가지산을 올랐다. 얼마쯤 되었을까? 한 등성을 돌았지만 정상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때 저쪽에서 갑자기 우당탕 나무 찍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심장병 있는 사람은, 자라보고 놀란 토끼 가슴처럼, 어디서 사슴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을 보고도 가슴이 철렁해진다고 말하는데,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적막한 산 속을 걷다가 갑자기 난생처음 들어본 소리에 내 가슴은 훅훅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급히 하늘을 쳐다보니 그건 나뭇가지 위에서 새가 나무를 찍고 우는 소리였다. 사실 그 새와 그 소리는 난생처음 보고 든 것이었지만 그것이 딱따구리 새라는 것은 곧바로 짐작했다. 내가 딱따구리 소리라고 유추하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릉의 크낙새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새에 대한 관찰 실력이라곤 거의 없었다. 크낙새라는 새의 명칭은 새의 소리가 워낙 크니까 “크낙새”라는 새의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크낙새는 현재 거의 멸종되어 광릉 숲에 가봐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까막 딱따구리가 가지산에 등지를 들고 살아가는 것은 가지산은 활엽수림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까막 딱따구리가 사는 곳은 활엽수림이 무성하고 울창한 가지산 같은 깊은 곳이라고 한다. 가지산은 가을에 낙엽이 질 때면 정상에서 내려오는 산길에는 낙엽이 수풀 덩불처럼 쌓여 그 높이가 내 무릎까지 찰 정도로 낙엽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가지산은 활엽수가 많은 산이다. 내가 찾은 그날은 활엽수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고 겨울나기에 들어간 시기였다. 그날 내가 만난 그 새가 까막 딱따구리 새라는 사실은 미리 알지 못했다. 나중에 책을 찾아보니 딱따구리는 “삼각형의 뾰족한 부리로 크낙새처럼 나무를 잘 쪼고, 나무 가지를 좌우로 한번씩 쪼으면 도끼로 찍듯이 큰 나무 조각이 찍혀 떨어지며 나무를 쪼을 때마다 산이 울릴 정도로 둔탁한 소리를 낸다. 거구의 둔한 행동에 독특한 울음 소리로 소란을 피워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 주게 되어 쉽게 희생될 수 있다. 크게 파상비행을 하며 난다.”고 적혀 있다.

까막 딱따구리의 새소리는 “끼리리리리링, 끼리리리리링”, “스스르륵, 스스르륵”이런 소리라고 하는데 그날제가 들은 소리는 워낙 커서 “딱 탁 따라라~~~탁~~~”이런 새소리 같았다. 내가 몸을 낮추고 숨어서 유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나무를 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딱따구리가 “몸의 반동을 이용해 뾰족한 부리로 쪼아대면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마치 도끼로 팬 듯이” 쓰러뜨릴 정도이고, 그래서 딱따구리 구멍 뚫는 소리가 계곡을 따라 능선까지 이어지고, 절까지 이어져 스님들은 까막 딱따구리를 오탁조라고 부른다고 한다.

되돌이켜 생각해보니 난생처음 그 새 울음소리가 그토록 크게 울려온 까닭은 어머님께서 새를 통해서 마지막 외침을 전했던 것 같다. 대나무 죽비로 머리통을 내려치듯, 그날 딱따구리가 나무통을 두들겨 패며, 큰 소리로 외친 까닭은 “네 이놈아~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 붙어 있는 날도 하루가 될지 일주일일 될지 모른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주 찾아 오지! 그렇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가느냐~”라고 말하는 가슴 속에 피멍 든 어머님의 목소리이었음이 틀림 없다. 그날 내가 난생처음 들어본 까막 딱따구리 패대기는 어머님의 야단치심이 아니었겠는가? 생전 처음 본 딱따구리가 그렇게 크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살아 생전에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자주 건네지 못했고 또 어머님께서 의식이 생생할 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용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내게 단 한 번도 어떤 화를 낸 적이 없으셨고, 내게 무슨 야단을 친 적도 없으셨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지지하고, 항상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언제나 기도의 마음을 간직하였고 그것을

보여 주셨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길러주신 은혜에 대한 빛과 의무를 그렇게 크게 족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 한번 조금씩이라도 갚아 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만을 안겨 드리고 말았다. 어머님께 대한 나의 불효와 그에 대한 회한이 커서 이제 내 눈물마저 메말라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무릎 꿇고 밤새워 한없는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나인데, 내가 어머니 병상 앞에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무언가 미신적인 것이 내 몸과 내 가슴과 내 심장과 내 오장육부와 내 발바닥을 두들겼지만, 어머님 살아 생전에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전해드리지 못한 나는 천하에 몸쓸 불효 자식으로 비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만 것이다.

그날 딱따구리의 울음소리는 어머니께서 어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나무 등걸 부리로 찌고 구멍 내어 등지 틀다가 힘들어서 우는 소리”였다. 어릴 적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자주 들었지만 지금껏 올빼미같이 생겼다는 소쩍새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어릴 적 한 밤 중엔 집 앞의 감나무 가지에 하얀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내 눈에는 여자 귀신으로 보여서 문밖에도 나가질 못했다. 소쩍새는 밤에 우는 새인데 내가 어떻게 무서워서 밤중에 새를 볼 수 없었다. 사실 적막한 저녁 시간대에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는 때론 슬픈 느낌이 가중되어 무서운 소름이 끼쳐 오기도 했다. 어른들이 말하길 보릿고개 때 소쩍새 우는 소리에 가난의 설움이 더욱 북받쳐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소쩍새 소리 한 번 듣지 못한다.

까막 딱따구리는 몸통 몸의 색깔이 검은 색이지만 머리 위에는 붉은 색이 선명한 새이다. 내 마음속에 까막 딱따구리는 검은 망토에 선명한 붉은 피를 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에서 똑똑 떨어지는 붉은 피에 나의 양심 또한 핏빛으로 물들고 말았다. 그날 딱따구리의 외침은 내 가슴을 후벼 판고, 내 마음의 양심을 장작 패듯이 도려 내며 내 가슴을 쪼아댄 것이다. 우수의 남자 배호가 불렀던 “마지막 잎새”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 마디를 변형하여 내 마음을 대신한다.

참 푸르던 잎 유성처럼 낙엽지고
송백에 달빛도 비껴가는 행한 고개
간재의 억새바람도 살며시 비껴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장작패대기하는 까막딱따구리 머리위로
핏빛 자국 남기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그날이 내가 어머님의 의식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눈 날이 되고 말았다. 까막 딱따구리가 그토록 장작 패대기치며 소리쳐 목놓아 울었어도 나는 새들의 마지막 외침의 의미를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새들의 메시지를 깨우쳤더라면 내가 즉시 되돌아서 어머님의 병실을 찾았을 텐데! 나의 무정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러질 못했다. 시린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린 그날, 까막 딱따구리가 내 가슴을 그토록 패대기했어도 어머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릴 줄 모른 나의 무지와 무정을 탓한다. 이제 자책감에 실어증에 걸려 할 말 마저 잃고 만 나날이지만 그래도 시 한 편은 읽을 수 있다. ‘까마귀’새를 노래한 김현승 시인의 “내 마음은 마른 나무가지” 시 구절을 인용한다. 아마도 그날 어머니께서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예비하신 것 같다.

“내 마음은 마른 나무가지
주여,

나의 육체는 이미 저물었나이다!
사라지는 먼뎛 종소리를 듣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빛을 공중에 흩으시고
어둠 속에 나의 귀를 눈뜨게 하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무가지
주여,
빛은 죽고 밤이 되었나이다!
당신께서 내게 남기신 이 모진 두 팔의 형상을 벌려
바람 속에 그러나 바람 속에 나의 간곡한 포옹을
두루 찾게 하소서.”

퀴블러-로스는 우울증 단계에 접어든 임종환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상실감을 이겨내고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예비적 애도반응”에 빠져 드는데 이 경우에는 그저 말없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하면서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만약 내가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을 이해하였고, 또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도 조금이라고 갖추고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지는 않았을텐데!

“말을 넘어선 침묵의 단계에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는 용기와 사랑을 지닌 사람들은 그 순간이 전혀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오직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는 평화로운 순간임을 깨닫게 된다.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별이 스러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광활한 하늘에서 반짝이던 수백만 개의 별 중 하나가 짧은 순간, 끝없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죽어가는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일은 인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함을 생각하게 한다. 그 일은 우리 자신의 유한함, 생명의 유한함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저마다 독창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류 역사의 한 울로 우리 자신을 엮어 넣는다.”⁸.

죽음과 임종의 말넢

죽음의 의미에는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임종과 죽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생소하면 우선 사전을 찾아보자.

임종

“임종 臨終 1. 목숨이 끊어져 죽음에 이르는 때. 그는 임종 당시 아들을 용서한다고 유언을 남겼다. 임종이 다가오자 우리는 선생님을 병원에서 댁으로 모셨다. 원어 임명종. 유의어. 망종 속광. 2. 부모가 운명할 때 그 자리를 지키며 모심. 방안에서는 두 아들이 임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겼다. 유의. 終身.”⁹

“임종간호: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⁸ 퀴블러-로스, “죽음과 죽어감”, 이진 옮김, 이레, 2008.

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2009, 5094쪽.

죽음

“죽음: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 죽음이 헛되다 죽음을 각오하다 죽음을 당하다

어머니는 나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 작고 사 사거 사망 사물 운명 입물 장면 절명. 죽음
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¹⁰

¹⁰ Ibid, 5729쪽.

죽음에 대한 의학적, 법학적, 철학적, 윤리학적, 신학적 개념

간호사는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호흡과 심장박동을 확인했다. 의사는 호흡 정지와 심장 박동이 멈추었음을 선언했다. 어머니께서 영원히 숨을 거둔 것이다. 어머니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숨을 결코 쉴 수 없다!

결코! 결코! 결코! 결코! 결코!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¹¹

의사가 사람의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은 심장 박동과 호흡 정지가 영구적으로 불가역적 irreversible으로 기능 정지되었을 경우로써 이는 의학적으로 죽음을 내리는 판정이고, 보통사람들의 생각도 이 기준에 따른다. 임상적 죽음 clinical death-심폐사는 ① 영구적인 호흡 정지, 폐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상태로써, 일반적으로 “숨을 거둔”상태를 가리키며 ②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상태로써, 이는 맥박이 멎은 것을 가리킨다.

죽음은 사전적 정의는 “생명의 중지. 존재하기를 멈춤.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멈췄고 또한 호흡과 맥박 같은 생물학적이고 필수적인 생명 기능이 정지되었음이 의사에 의해 판정된다.”¹²

법률에서 규정한 “사망 Death”의 정의를 보자. “사람이 순환 및 호흡기능의 비가역적인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기능의 비가역적인 중지 상태에 있는 경우는 사망으로 판정할 수 있다. 사망 판정은 표준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¹³

하지만 여기까지는 생물학적 유기체적 죽음, 의학적인 임상적인 죽음을 선언한 것이고, 법적인 죽음은 다음날 사망확인서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죽음은 3일 후 장례식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회와 성당에서 추모예배와 미사가 울려지며 절과 전통적인 의례로는 제사가 받들어지며, 더구나 신학적으로 부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은 단일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의식 속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죽고 난 후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또렷해 지는 경우가 흔하다. 수많은 문학, 영화, 예술작품 등을 보자.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모두가 죽음 이후에 대한 논의이다. 슬픔과 애도의 과정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사람의 죽음이란 육체적인 소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살아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삼라만상 지구 상에서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죽을 때, 유기체인 시신은 소멸되고 땅과 하늘로 되돌아가지만 또 새로운 다른 삶을 계속한다. 유기체 생명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단발성의 사건이 아니었으며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게 보인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상태하고 같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숨쉬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육체적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¹¹ 셰익스피어, 리어왕, (5막3장).

¹² “The cessation of life; the ceasing to exist; defined by physicians as a total stoppage of the circulation of the blood, and a cessation of the animal and vital functions consequent thereupon, such as respiration, pulsation, etc.” Black’s Law Dictionary.

¹³ “Determination of Death”, “An individual who has sustain either (1) irreversible cessation of circulator and respiratory functions, or (2) irreversible cessation of all functions of the entire brain, including the brain stem, are dead. A determination of death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accepted medical standards.”,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1981).

왜 하버드 판정 기준이 유명한가?

사실 육체적 죽음의 대한 개념 또한 여러 가지이다. 뇌사는 어떤 경우인가? 뇌사가 중요하게 된 것은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기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됨으로써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죽음의 한 종류인 것이다. 뇌사 brain death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때는 1968년에 불과하다. 유명한 하버드 의대 뇌사 판정 기준을 상기하라. 이것이 잘 알려지게 된 이유는 의학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죽음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⁴ 뇌사의 개념에 대한 열띤 논란 이후 “안락사”의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가 뜨거워졌다. 안락사의 문제는 뇌사의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안락사는 고대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 시대¹⁵ 때 존재해 온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작은 글이라도 하나 쓸려고 하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라. 사람의 지적 교류에는 글에 나타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글을 접한 독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는 보다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힘든 작업에 속한다. 자기 생각을 말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공개적인 글쓰기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의 힘든 과정을 거친 하나의 작품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담 스미스, 뉴턴, 다윈 같은 정말 위대한 천재도 몇 십 년을 연구한 끝에 세상에 내놓았다. 비록 이들처럼 위대한 발견을 하여 인류 발전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목적을 전혀 났 수 없는 성격이지만 최고의 외국의 문물과 문화와 제도를 사실을 배우고 익히고 난 후 최소한의 경험에 기반하여서 나는 이 작은 글을 쓰게 되었다. 다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같은 목적을 착실하게 추구해 왔다. 이런 개인적 사함을 상세하게 밝히는 것은 내가 결론에 도달할 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독자들이 이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최소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록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신 로스쿨에서 부터 오랜 세월을 걸쳐 철학적 법학적 개념 특히 사형(형법적 개념), 자살(뒤르켐의 개념), 안락사(Glucksberg 케이스), 존엄사(Death With Dignity Act), 낙태 (Rowe 케이스) 등의 여러 영역에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쌓여진 생각을 갖고 다듬고 또 이를 어머니의 선종을 계기로 작은 글로써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하버드 대학의 뇌사 판정 기준은 의료계 상황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결과로 생긴 것으로 그래서 잘 알려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의학 기술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고 논란을 정확하게 끝맺음을 한 것이 아니었다. .

뇌사 brain death의 핵심은 “비가역적인 혼수 irreversible coma” 상태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하버드대는

① Deep coma / Unreceptivity and unresponsivity 깊은 혼수상태에서 몸 안팎의 어떠한 외부적 감각 자극도 수용하지 수용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상태

¹⁴ 죽음의 철학적 논의에 대한 검토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plato.stanford.edu/entries/death-definition/>.

¹⁵ “나는 사람을 죽이는 약물을 누가 원한다고 해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방도 결코 권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여자에게도 낙태 약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의술을 지키겠습니다. “I will neither give a deadly drug to anybody who asked for it, nor will I make a suggestion to this effect. Similarly I will not give to a woman an abortive remedy. In purity and holiness I will guard my life and my art.”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 ② No movements or Breathing 1 시간 동안 관찰하여도 아무런 자발적인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도 없다. 3분간 인공호흡기 ventilator 제거에도 자발적인 호흡이 없다
- ③ No reflexes, Arreflexia (cranial+spinal) 척수반사를 비롯한 모든 반사의 소실
- ④ No brain waves, flat electroencephalogram(EEG) 평탄한 뇌파
- ⑤ Exclusion of hypothermia and drugs

이렇게 다섯 가지 구체적인 뇌사의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다.¹⁶ 위의 5 가지 기준이 24시간 후 다시 반복 검사하였을 때도 변함이 없어야 뇌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니 6가지 기준이 제시된 것 같다.

하버드대 기준이 등장한 후 40년이 지난 최근 2008년 미국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뇌사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 보기는 이 기관의 사이트를 참조하라.¹⁷ 여기에서 “Total brain failure 전뇌장애 혹은 전신경계부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죽음에 대한 개념은 고정된 것이 끊임없는 발전을 거쳐왔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⁸

¹⁶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05(6), 1968, at 85-88.

¹⁷ The President's Commission for the Study of Ethical Problems, “Controversies in the Determination Of Death”, archived at [https://bioethicsarchive.georgetown.edu/pcbe/reports/death/Controversies%20in%20the%20Determination%20of%20Death%20for%20the%20Web%20\(2\).pdf](https://bioethicsarchive.georgetown.edu/pcbe/reports/death/Controversies%20in%20the%20Determination%20of%20Death%20for%20the%20Web%20(2).pdf).

¹⁸ Michael De Georgia, “History of brain death as death: 1968 to the present”, “Journal of Critical Care”, Volume 29, Issue 4, Augus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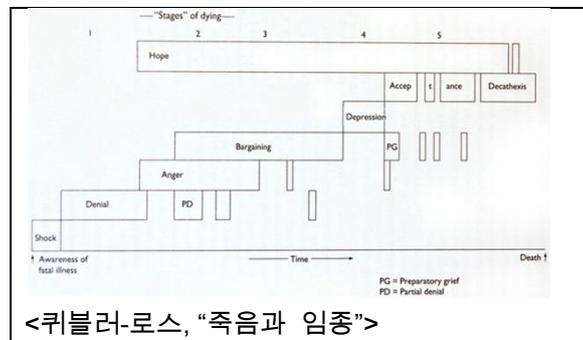
퀴블러-로스 “임종의 5 단계 Five Stages of Dying” 과정 이론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격언은 인구에 회자된다. 죽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꼭 찾아온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죽음의 시점과 장소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사람의 죽음은 그 시기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없는 불확정적인 이벤트이다. 죽음은 오로지 한 번 밖에 일어나지 않는 단 일회성의 사건이다. 죽음은 누구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다. 죽음은 여행 연습도 없고 오로지 단 한 번뿐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은 소수의 특정인으로 제한되는 가장 사적인 일이다. 따라서 임종 장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제한적인 조건에서 임종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가족 또는 의사 간호사 성직자 등 극소수의 특수 관계인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의 경우 외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죽음은 일회성이다 제한적인 사건이어서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따라서 사전에 지식을 갖추기가 쉽지 않는 영역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이다. 부모 형제자매의 죽음에 대해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겪게 되고 또 죽음은 최대의 위기의 순간인데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임종의 진행과정을 모른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러한 죽음의 현상 앞에서,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어떤 감정과 태도를 보이게 될까?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환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심리적 반응은 공포감,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마음과 감정을 가진 영혼의 동물인 인간인 이상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된다면, 그 진행 방향과 과정은 어떠하고 또 그러한 반응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해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임종 환자들의 심리 상태 변화를 간단하게 이론화한 퀴블러-로스 Kübler-Ross의 “임종의 5 단계설 Five Stages of Dying”이 유명하다. 퀴블러-로스(1926-2004)는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과 임종 On Death and Dying” 책에서 “임종의 과정”으로써 ① 부정과 고립 denial and isolation ② 분노 anger ③ 타협 bargaining ④ 우울 depression ⑤ 수용 acceptance 이렇게 5 단계 stages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임종의 5 단계설 Five Stages of Dying”을 제시했다.



퀴블러-로스의 임종의 5 단계설은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단계이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인생 7단계설 같은 피상적 묘사론 혹은 구분을 위한 구분론이 아니라, 불치병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겪

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써, 당사자와 가족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지침서에 해당한다.

셰익스피어는 사람들이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 겪는 과정으로써 “인생 7 단계설”을 주장했다. 희곡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As You Like It”에서 전개한 “인생 7단계”는 ① 어머니 젖을 먹는 유아기 ② 학교 가기 싫어하는 배움의 아동기 ③ 연인의 미세한 부분까지 찬미하는 사랑에 빠진 연인기 ④ 명예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르는 싸우기 좋아하는 군인기 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세상 바른 말 잘하는 정의기 ⑥ 입과 다리에 힘 빠지는 노인기 ⑦ 이빨 빠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먹지도 못해 모든 것이 잊혀지는 제2 유아기같은 노망기이다.

1. 부정과 고립 단계 denial and isolation

퀴블러-로스의 “임종의 5 단계설”에서 임종의 첫 번째 단계는 ① 부정과 고립 denial and isolation 단계이다.

병원에서의 입원

임종이 가까이 온 환자들은 자신이 회복불가능한 위중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곧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자신의 상태를 의료진이나 가족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각한다고 말한다. 더러는 말기암환자의 경우처럼 불치병에 대한 통보를 미리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임종 환자가 나타내는 첫 반응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그들은 대개 “아니야, 그것을 난 믿을 수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진단이 잘못되었을 거야” 등의 말로써 부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죽음이 닥쳤다는 소식은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임종의 충격 shock 상태”이다.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모두 불멸의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¹⁹ 쇼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기제로써 부인과 고립의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애써 부정하는 태도는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일시적인 충격을 받고 그것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과 고립의 반응은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환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의식하고, 충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환자는 진단이 잘못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고 여러 의사를 찾아 다니며 좀 더 나은 진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간병인은 환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동시에 환자 스스로 자신의 병에 대해 좀 더 적절한 견해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환자에게는 대화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환자가 원한다면, 죽음과 임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편이 좋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환자는 공포를 덜 느낀다고 한다.

내가 추측하기를, 어머니는 소음을 못 견뎌 하시고 괴로워하셨을 테다. 많은 사람들이 낯선 곳에 여행이라도 할 때면 밤 잠을 들지 못하고 전전반측하는 경우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병적 적응장애의 현상이라기보다 누구든지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이탈하면 어떤 거부반응이나 적응하는데 애로를 겪게 되는 것 같다. 잠시 거쳐가는 여행이라면 모르지만 어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지도 모른다.

밤 잠을 자기 못하는 까닭은 낯선 곳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한 요인일 것이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확대된다. 캄캄한 밤에는 주로 청각에 의존한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청각반응은 매우 예민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공포감을 더욱 자극시킨다. 낯선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전쟁의 총소리만큼 무서움과 공포를 불러오는 지도 모른다. 소음은 평정심을 찾는 데 큰 방해가 된다. 미래는 불안하고,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힘들지 않겠는가? 병원에 입원하는 단계는 고통의 해소가 고통의 시작을 선언한 것인지도 모른다.

19 퀴블러-로스, “죽음과 죽어감”, 이레 (이진 옮김, 2008), 71-72.

사람의 청각기관인 귀는 임종의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 임종 환자가 말은 못해도 귀로는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귀는 말소리만 들을 수 있는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뇌와 신체의 평형 감각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귀의 세포는 다른 세포하고는 달리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눈은 재생수술도 있고 잃은 시력은 회복될 수 있지만 귀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영원히 세포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기에 청력의 회복은 힘들다고 한다. 사람이 나이가 드는 현상이 눈의 피로도 가장 먼저 느껴진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귀에서부터 노화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귀가 점점 먹어간다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노인과의 대화는 목청껏 소리치며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는데 그와 같이 사람의 청력은 서서히 약해진다. 세포가 하나씩 차례대로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파괴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 사람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서 말은 못해도 귀로는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조금은 역설적인 면으로 느껴진다.

도회지의 병원과 도시의 소음과 병원의 소음

큰 도시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낮과 밤을 속이고,
동물과 어린아이를 속입니다.
도시의 침묵은 거짓이며,
소음과 숨은 의도가 들어 있어
거짓말을 합니다.²⁰

“자동차들이 내 위로 지나간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고, 창유리 한 장이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큰 유리 조각이 웃고, 작은 유리 조각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때 갑자기 건너편 집 안에서 둔탁한 소음이 들려온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고 있다. 온다. 멈추지 않고 온다. 선다. 거기 오랫동안 서 있다가 지나간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거리의 소리가 들린다. ... 더 이상 못 참겠어. 전차가 아주 흥분한 듯 달려와 그 목소리를 덮치고 지나간다. 모든 것을 덮치고 지나간다. 누군가 소리 질러 사람을 부르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간다. 개 한 마리가 짖는다. ... 그러다 갑자기 잠이 든다.”²¹

“이런 것들은 다 소음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숨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고요한 정적이다. 가끔 큰 불이 났을 때 그렇게 극도로 긴장된 순간이 있다. 물줄기가 잦아들고, 소방수들도 더 이상 기어오르지 않고, 누구도 꿈쩍 하지 않는다. 저 위에서 검은 서까래가 앞쪽으로 쏠리고, 벽 뒤로는 불길이 치솟고 있는 높은 벽이 소리 없이 넘어진다. 모두들 어깨를 꼭 움츠리고, 눈 위의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는 모습으로 가만 서서, 꿈쩍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의 정적은 폭풍전야 같은 무서운 고요함 바로 그것이다.”²²

²⁰ Rilke, The great cities are not true; they deceive
both day and night, both animal and child;
their silence lies, with noises they are lying
and with those things that are willing.

²¹ 릴케, “말테의 수기”.

²² Rilke, “Those are the noises. But here there's something that's more terrible: the silence. I believe that sometimes when a great fire occurs you can get a moment of extreme tension: the water jets slacken off, the firemen no longer climb, nobody stirs. Soundlessly a black cornice edges forward up above; and a high wall, behind which flames are mounting, tilts, also without a sound. Everyone stands, shoulders hunched, tense, with the part of their faces above the eyes pressed into furrows, waiting for the awful crash. That's how it is with the silence here.”

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죽는 것으로 오해하게 될까?

사실 “병원에 가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죽음과 연관된 하나의 큰 사건이다.” 퀴블러-로스가 말하는 대로, “병원으로 실려가는 과정이 죽음을 향한 첫 번째 사건”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 단계”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죽음의 묘비 앞으로 들어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환자들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자존심이 있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자율성을 누릴 수가 없고 따라서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된다. 그건 문화이기 때문에 다들 주위에서 보고 들어서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죽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들 모두에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옹의 정신분석학을 배운 퀴블러-로스는 말한다.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모두 불멸의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²³ 따라서, “어쩌면 누구라도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삶이 너무 일찍, 너무 갑작스럽게 유린당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화가 날 것이다.”

병세가 위중해 지면, 주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헛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소동을 피우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은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마지막의 “수용” 단계에 해당된 시기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누나가 엄마는 이제 사람들도 잘 분간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하길래, 내가 병문안 갔을 때 어머니께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흥희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다. 돌아가시기 전 1개월 전에도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 봤을 때, 못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때 회진하던 의사가 나를 보고서 어머니에게 “누구인지 알아 보시겠어요?”라고 말하며 물으니깐, 어머니께선 의사에게 “내 아들이요.” 이렇게 또렷하게 대답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머니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과 수준으로 판단하건대, 내가 어머니하고 긴 대화를 진행하지 못할 상태에 이를 때까지 나는 어머니의 정신과 마음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해 볼 때 무슨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전혀 느껴볼 수 없었다.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언어능력이야 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어머니의 인지 능력은 대화를 못 나눌 형편은 분명히 아니었음을 볼 때, 나는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속설을 이제부터 믿기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육체적 생물학적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지능력 또한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육체적인 허약함의 정도와 정신과 영혼의 상태는 단선적 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것 같다.

23 퀴블러-로스, “죽음과 죽어감”, 71-72.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통증의 기간

치과병원에서 생이빨을 빼낼 때, 살갓을 도려낼 겪는 참을 수 없어 미칠 것만 같이 큰 아픔도 언젠가는 통증이 멎기 마련이다. 수술과 같은 일회성이 아닌 편두통같이 반복되는 아픔도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재발한다. “슬픔은 파도를 타고”라는 말처럼, 사람의 우울증 같은 병적 아픔이나 정신상태는 일정하게 쫓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다의 파도 waves와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 다른 병적 아픔과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의 정신 상태가 때로는 정신이 나갈 때도 있고 또 정신이 온전히 맑을 때가 있다. “좋은 날과 나쁜 날 good and bad days”이 섞여 있다는 것을 수긍한다. 하지만 비록 거동을 완전히 못하고 움직일 수 없어 병상에 24시간 누워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 내 판단으로는 어머니의 정신은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인지 상태가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다.

어머니 팔과 신체에 검은 반점이나 얼룩이 생겼는데 그것은 혈액 순환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며 죽음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나는 그런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팔 등에 생긴 검은 반점들을 보고서 내가 어머니께 그것이 왜 생긴 것인지를 질문한 적이 있다. 그 때 어머니의 즉답은 간호사가 그랬다고 한다. 병문안을 자주 가는 누님에게는 간호사들이 어머니 병세 상황을 말했다고 한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내게는 어떤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은 아마도 내가 남자라는 성별 또는 내가 자주 병문안하는 아들이 아닌 이유 등으로 설명될 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은 환자 개인으로써의 성격은 사라지고 소위 군대 병영의 관물처럼 사람이나 아니라 물건처럼 몰개성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한국의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요양병원의 역사와 행태 그런 전철을 답습한다는 것은 피는 붉은 색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보인다.

요양병원의 간호사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평판도가 떨어지고 또 이직률도 높다는 사실은요양병원의 성격과 환경적인 요인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어머니께서 반점이 죄없는 간호사에게 돌리는 그런 정도의 대답은 누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학대 받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외국의 사례만은 아니다. “노인 학대”는 1975년 영국 의학지에 “granny battering”라는 단어로 맨 처음 발표된 이후 노약자 학대 문제는 단순한 우려의 정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이 되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반은 어떤 형태로든지의 학대를 경험한다는 논문을 인용하고 있다. (<http://www.ncea.aoa.gov/Library/Data/>) 2010년 발표 논문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47%가 학대나 무시 냉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학대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정부 기관 (Older Americans Act 등의 법률에 따라)을 두고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야이다. 미국과 같은 모든 사람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경노호친 사상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문제는 무풍지대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85세가 환자들 중에는 스스로 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가 거의 다수이고 따라서 이들은 간병인들로부터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간병인의 악의가 없다고 해도 그들이 환자에 대한 언어나 태도로써 무시 냉대 학대 받는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고 들었다. 존댓말이 발전한 한국어의 성격 그리고 환자의 특별한 상태를 감안해야 하겠지만 꼭 물리적 폭력은 아니라고 해도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환자는 완전히 통제 관리 당하고 있다는 사실 (투여 약 처방은 차치하고) 그 자체에서 개인적 자유를 잃은 환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클 것이다.

어느 요양병원으로 정할 지 고민할 때 관계자들이 사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점검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병원의 속내는 외부인이 눈으로 한번 결눈질한다고 해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행정 기관에서 요양병원의 수준을 호텔 등급 별표 대기듯이 병상 규모 등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등급을 매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병원의 질적 수준은 환자 개개인의 질적 차이만큼 어떤 양적 기준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는 것 같다. 요양병원은 다른 외과 병원과는 달리 환자에 대한 “배려 caring”가 가장 중요한 질적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요양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행정기관 담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질적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인간본성의 문제이어서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어느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치고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면회 현장에서 환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겠는가? 병원 관계자들의 “좋고” 또는 “나쁜” 사람인지의 평가는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로써 평가될 것이지만 외부인은 그것을 평가할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병원이 환자에 대해서 흑사라도 서운하게 대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또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직업적으로 돌봐주는 간병인들의 태도가 항상 천사 같이 유지될 것으로는 믿는 것은 단순한 기대이지 현실이 아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수시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고, 24시간 보호를 하고 있지만 병실 안까지 CCTV 화면을 켜 놓고 환자를 돌볼 수를 없는 것이고, 가족들이 면회 오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본다면 병원관계자들이 환자들을 환자 가족들만큼 똑같이 애뜻한 심정으로 간병을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서 섭섭한 반응이 나올 만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치매 탓이라고 돌리고 환자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근거로 탓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내가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병상을 지킨 것도 아니고, 특히 어머니를 모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 자신이 어머니의 병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병문안을 통한 경험한 사실로써 어림짐작하건대 어머니는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는 마지막 죽음의 병상에 누워계시던 최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정신상태는 온전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 환자는 시간이 갈수록 중세가 심해진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에 어머니께서 이제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보기 힘든 상태 즉 인지 활동이 매우 약해졌다는 마지막 순간에 이른 시기에서 의사에게 “내 아들이요.” 그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상태였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병원 신세를 지면서 겪는 고통²⁴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었을 것인데, 그러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병원관계자와 가족 보호자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²⁴ 통증 사정 pain assessment의 측정 항목에, “언어적 호소 Verbal complaints, 얼굴표정 Facial expressions, 보호적 자세 Protective body postures, 아픈 부위의 보호 Protection of sore areas, 수면 장애 Disturbed sleep, 일상 생활 동작에서의 기능적 장애 정도 Functional impairment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행동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반응 Psychosocial reactions such as behavioral problems, 그리고 의사소통 또는 사회생활의 변화 Changes in communication or social life” 등이 있는데, 통증 사정과 평가는 24시간을 병원에서 지내는 환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병원 관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서 어떤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의사는 그에 대해 마땅한 처치나 약물치료 등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기록들은 병원 자료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약물 치료에 들어간 약의 종류는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의사의 윤리적 의무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간병인이 입안으로 떠먹여 공양하는 식사를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가 혹은 아편 성분인 모르핀 주사를 언제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결정 문제는 의사 간호사 영양보호사들의 전문가적 윤리 의무가 충돌하는 고민의 영역에 속하기도 하다.²⁶ 대개 임종 직전 1개월 동안 집중 치료를 하는데 이 때 간호사, 의사는 전문가의 윤리 의무가 자주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보인다. 사실로 확인되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대개 의사가 모르핀 같은 통증 완화제를 투여한다. 이에 대해서 의사들은 하나의 단순한 행정적인 과정으로써 여기고 따라서 어떤 윤리적 갈등이 안 생길지 모르나, 환자와 가족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등에서 의무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²⁷ 모든 회복 가능성이 사라진 임종 순간에 아편성 모르핀 투여를 하는 의사의 결정 배경을 말해주는 표현을 보자. “환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환자를 편안하게 해 줄 수는 있다 I could not give her health but I could give her rest.”²⁸ 최후의 순간이 오면 고통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으로써 의사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의 양심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전과 달리 현재는 결국 사람의 죽음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²⁵ 의사와 환자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전문가의 윤리 의무 충돌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의 시 하나를 소개하는 정도로 언급을 끝낸다.

Raymond Carver, “What The Doctor Said”,
 He said it doesn't look good
 he said it looks bad in fact real bad
 he said I counted thirty-two of them on one lung before
 I quit counting them
 I said I'm glad I wouldn't want to know
 about any more being there than that
 he said are you a religious man do you kneel down
 in forest groves and let yourself ask for help
 when you come to a waterfall
 mist blowing against your face and arms
 do you stop and ask for understanding at those moments
 I said not yet but I intend to start today
 he said I'm real sorry he said
 I wish I had some other kind of news to give you
 I said Amen and he said something else
 I didn't catch and not knowing what else to do
 and not wanting him to have to repeat it
 and me to have to fully digest it
 I just looked at him
 for a minute and he looked back it was then
 I jumped up and shook hands with this man who'd just given me
 something no one else on earth had ever given me
 I may have even thanked him habit being so strong.

²⁶ “치매 환자에서 통증은 인지기능,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초조와 관련이 있으며, 통증이 있는 치매환자의 부적절한 통증관리는 활동과 수면방해, 신체적 기능감소, 입원기간 연장, 우울 및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은 대개 의사 간호사의 전문가적 결정에 거의 위임된 상태에 가깝다. 대개 환자 가족은 관련 지식과 병원으로부터 받는 정보 제공의 한계로 인해서 그러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²⁷ 말기 진정 Palliative Care: “The monitored use of medications to induce a state of decreased or absent awareness (unconsciousness)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 of otherwise intractable suffering in a manner that is ethically acceptable to the patient, family and health-care providers.”

²⁸ Shannon ed 97-98. “Death & Dying-a reader”, SW Book, 2004.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르러 의사는 모르핀 투여 결정을 내리는데 이 때 윤리도덕적 딜레마를 느낄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 마지막 임종 순간을 직업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계기판 수치(심장박동수, 산소포화도, 맥박, 혈압, 호흡곤란 등 의학 계기판적 측정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임종 순간을 예측하고 모르핀을 투여해 놓고서도 가족 보호자에게 그런 마지막 임종이 임박한 정보나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의 전문가 윤리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의 간호사, 의사의 평판 문제가 낫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책임 윤리의 규율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색 gray 영역의 문제들은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종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보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설 요양 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의료인의 윤리의무가 큰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소속 기관이 결정하는 치매 관리 체계 문제점

행정부 소속하의 행정 편의상의 목적에 주로 기능하는 보건소가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입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 치매 관리 체제는 사설 요양 업계의 이해와 맞물려서 이들을 도와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29,30} 1960-70년대 산업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보건행정 당국은 가족 계획을 주도했다. 가족 계획 사업과 인구 통제 정책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가정 1자녀 갖기 단산 斷産 운동” 등의 대표적 보건행정 당국의 표어가 잘 말해주는데, 그 일환으로써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면 정관수술을 장려하고 무료로 시술해 주기까지 한 사례를 상기해 보자.

보건소의 치매 판정의 기준과 단계 또한 그와 유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보건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행정부가 치매 판정을 행정적으로 독려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단 순간에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급속도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임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완전성의 박탈권을 행정부의 편의적 잣대에 따르고 쥐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점을 양산하는 기폭제 또는 촉매제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 “병 주고 약 주는” 수용소 관리 병동 체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치매 판정의 기준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은 환자의 태도와 행동이 타인 또는 환자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느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서 판단하기 보다는, 보험 관리자가 결정권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한 보건소의 치매 판정의 진단 체계 등 국가 관리 체계와 업계 구조는 의사의 윤리 의무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완전성에 대한 심각할 정도의 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부분으로 보여진다. 환자가 자신 스스로 거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환자의 이상 행동 판정에는 환자 자신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근거는 명확해야 할 것이지만, 보험 체계와 병원 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행정적 편의에 기반하여 핵심적인 관리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진다.³¹

²⁹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된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보험공단의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1차 판정을 하고 이러한 1차 판정의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이 이루어진다.” 실무 처리과정 처리를 포함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³⁰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참조.

³¹ 보건복지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환자수는 541천명(남성 156천명, 여성 385천명)으로 추정된다.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환자수도 2012년 약 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 분노 단계 anger

임종 환자들이 나타내는 두 번째 단계의 감정적인 반응은 분노라고 한다. 첫 번째의 부정과 고립의 반응에서 이제는 “그게 사실이구나! 정말 나에게 닥친 일이라는 거지” 라는 감정으로 바뀌면서,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 내가?”라는 말로 표현되는 반응에 가깝다. 이 단계에의 환자는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므로 환자를 다루기란 여간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 때의 분노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진, 성직자, 상담자 등에게 예고 없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고 한다. 이 때 환자의 분노와 불평을 경험하는 가족과 친지 등 방문객은 충격을 받거나 오해를 하게 되어 환자를 방문하기를 꺼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환자의 분노는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의료진, 가족 등 모두에게 불편은 크고 심해주는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이 때 환자의 분노를 참고 받아 주는 마음의 포용과 기술적 대처가 필요한 것 같다.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이해해 주는 것이 보다 나은 태도라고 한다. 환자의 상태에 공감하고 그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태도로 대하면 환자의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이 시기에 환자는 누구와도 만나기를 꺼려하며 혼자 있기를 원한다. 이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부분의 주변인들이 가급적이면 대응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 죽음의 원인을 그들에게 탓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원망과 더불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하다가, 마침내 내가 아무리 원망해 봤자 별 도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내가 뒤돌아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상태가 치명적인 죽음의 단계는 아직 아니었지만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할 때 겪었을 이 때의 “분노 anger 단계”가 가장 어려웠고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다. 퀴블러-로스도 이 분노의 단계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 감금당한다고 생각할까?

평소 자립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하는데 나의 어머니 또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여가 무척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바꿔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고, 하지만 그런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식들에게 어떤 원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더욱 병원 생활을 적응하기 힘들어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어머니께서 처음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장기 입원하게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무척 힘들어 하셔서 제발 병원이라도 바꿔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병원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 분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환자치고 처음부터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는 환자가 있단 말인가?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병원 관계자나 의료 전문가 같은 사람들 밖에 더 있겠는가? 덧붙이자면, 임종에 이르는 환자들은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다섯 단계의 과정(꼭 일련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적 과정이 아니고 복합적인 단계라고 말한다)을 거친다는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에서 강조하는 주요 내용을 참고해 보라.

어머니는 평생 동안 내게 어떤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낸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는 한 마디로 통칭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랑의 훈계를 많이 하셨다.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라. 예의 범절을 갖추어라. 침착해라. 겸손해라.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된다. 사람은 먹는 대로 크니, 꼭 아침을 챙겨 먹어라. 과일을 많이 먹어라. ... 등등 사랑의 설교를 마다한 것은 아니었다. 자식이 너무 착해서! 거짓말하나 하지 못하고! 너무 사람을 믿는! 경향이 큼을 알고서 다만 걱정을 많이 하셨다. “공부하라”는 훈계는 내게 없으셨다. 무슨 사고를 쳐서 학교 선생님께서 부모님 호출을 당한 적은 결코 없었다. (국민학교 시절 전과를 살 가정 형편이 되지 못했는데, 그 때 내가 어머니에게 참고서 “표준전과”책을 사야 한다면서 책값은 “동아전과” 가격으로 얘기하고 그 차액을 뺀 사실이 내가 아마도 엄마를 속인 죄에 해당하는데 그것에 대해 돌아가시기 전 결국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내게 야단을 치고 싶어도 얼마나 참았을 것인지 그 속타는 마음이나 아픔까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특히 배운 자식이 부모 멀리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결코 틀리는 않는다는 사실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 나의 경우가 그것에 해당하는 사례에 들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평생 동안 남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남을 속이려는 한 적이 결코 없었고, 또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은 추호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어머니의 성격과 상황으로 판단컨대, 어머니의 치매 상태는 전혀 거동을 못하는 상태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어떤 해를 끼칠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그 근거 하나를 들면, 내가 병문안을 갔을 때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웃병상의 동료환자들 어느 누구도 어머니께 어떤 불평을 건넨 적이나 또 그런 불평을 내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근거 하나는, 어머니께서 선종하신 날 한 간호사가 어머니 병상을 지나치면서 저만치서 던진 한마디 말이 어머니를 표현한 진실된 말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간호사가 한 말은 “오** 할머니,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라는 코멘트였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나 간병인이라면 누구든 좋은 말을 하는 의도에서 그냥 해보는 의례적인 상투어를 내뱉은 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가 무심코 그런 말을 던지는 “인간성 humanity” 측면에서 볼 때 그 말은 진

실제 가까운 표현임을 나는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 처음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장기 입원하게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무척 힘들어 하셔서 제발 병원이라도 바꿔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병원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 분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람의 분노 감정-“왜 하필 나인가?”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은 호머의 “일리아드”으로 알려져 있다.. “일리아드”는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에서의 시구절로 더욱 우리에게 친숙한 “트로이 목마” 사건이 전개되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그려낸 대서사시이다. 일리아드에서 첫 문장은 “분노”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Rage—Goddess, sing the rage of Peleus’ son Achilles. 분노-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스의 분노를 노래하라.”³² 일리아드의 주된 테마는 인간의 “분노 rage”를 다루고 있는데 첫 문장에 분노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에서 작가의 세밀한 의도가 읽혀진다. 분노는 인간의 동기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분노와 복수는 “법의 지배”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법은 “폭력의 개입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법의 출발과 결과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 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정의의 출발점은 분노를 느끼는 것에 있다는 것은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의 첫 마디가 분노라는 말로써 유추된다. 사람들은 불의에 의해 희생당한 것에는 동정을 느끼고, 부당한 측재에는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크다. 분노와 정의는 서로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하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된다. 분노는 정당한 자기 몫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다. 카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분배 문제에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만큼 받지 못하면 불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보다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붐비는 것 같다. 죄 짓는 자가 활보하는 세상이라는 하지만 그러한 악은 선에 비교하여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예컨대 악은 전체 중에 기껏해야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소수의 악의 존재를 통하여 더욱 큰 선을 실현시킨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보다 더 선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악은 존재할 필요가 있는 “필요악 necessary evil”이 된다. 사실 만약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을 알 수가 있겠는가? 고통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 꼭 전생에 업보 때문이 아닌 것이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평소에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닌 것처럼 삶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경우 또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 속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그토록 고통을 크게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38장을 읽으면 어머니께서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 것임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시편 38장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해 주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편 38장은 눈물 없이 볼 수 무성영화 변사의 상업적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고통의 당사자가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의 목소리이다.

시편 38편 [새번역]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므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³² “Rage — Goddess, sing the rage of Peleus’ son Achilles, murderous, doomed, that cost the Achaeans countless losses, hurling down to the House of Death so many sturdy souls, great fighters’ souls, but made their bodies carrion, feasts for the dogs and birds.”, Robert Fagles (1990).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굼아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울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병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3. 타협 단계 bargaining

환자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남의 탓을 해 봤자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분노하기를 포기하고, 다음 단계인 ‘타협’을 시도하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 하든 연기하려고 시도한다. 옛날보다 착실한 행동을 보이려 하고, 특별한 헌신을 맹세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망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 며칠이라도 좋으니 통증이나 신체적 불편 없이 보냈으면 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조금 미루고 싶어” 하는 단계로써 이 단계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한다. “협상”과 “타협”의 기간이 길고 멀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할 것이다. 타협은 환자가 삶을 연장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시도하는 노력이라고 한다.

타협은 대개 종교적인 절대자와 한다.³³ 분노와 원망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거래를 시도하고자 하는 타협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조금 미루고 싶어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한다.³⁴ 여기서의 타협은 종교적인 태도에 가깝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간직하고 있거나 또는 의료진, 요양보호사, 성직자, 상담자 등과의 만남에서 그 속내를 언뜻 비추기도 한다고 말한다.³⁵ 종교적인 절대자에 기대는 타협은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³⁶ 예컨대 환자가 자신의 죽음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신으로부터 벌을 받은 결과라고 여긴다든가 그렇게 타협의 태도와 내용에 비합리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따라서 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하기 보다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4. 우울 단계 Depression

이 우울 단계는 ① 부정과 고립 denial and isolation ② 분노 anger ③ 타협 bargaining 단계의 심경 변화를 거치고 여러 관계적인 끈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서 우울증 반응이 나타난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의 감정에서 “그래, 나야”의 심경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병세를 인지하고,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고 다가오는 죽음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³⁷ “이 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 지금까지 실수와 잘못에 대해 자책과 후회에 빠져들고 슬픈 감정을 나타낸다.”

퀴블러-로스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겪는 우울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반응적 우울 Reactive depression”과 “예비적 애도 Preparatory grief”이다. 우울 단계에서 퀴블러-로스가 “예비적 애도 Preparatory grief”라는 별도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반응성 우울증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퀴블러-로스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 비슷한 행동은 죽음의 단계에서 당연하게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병적 우울증 환자와는 다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예비적 애도 preparatory grief”라는 별도의 개념을 제시한 것 같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38,39} 우울증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고 우울증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⁴⁰

33 퀴블러-로스, “죽음과 죽어감”, 이레 (이진 옮김, 2008), 139.

34 Ibid, 138-139.

35 Ibid, 139-140.

36 Ibid, 139-140.

37 “Preparatory grief is the normal grief reaction to perceived losses experienced by persons who are dying.”

38 퀴블러-로스, “죽음과 죽어감”, 이레 (이진 옮김, 2008), 143.

39 Ibid, 143-145.

40 Ibid, 143.

퀴블러-로스는 이 “예비적 애도” 반응을 “시한부 임종 환자가 이 세상과의 결별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grief that] the terminally ill patient has to undergo in order to prepare himself for his final separation from this world.”⁴¹-이렇게 규정했는데, 시한부 임종 환자가 나타내는 예비적 애도 반응은 그가 살아온 이 세상으로 영원한 작별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것, 즉 자연경과적인 현상으로 본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무엇인지를 분석해 들어갈 때, 이 때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은 스트레스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 경과상 재발하는 내인성 질환-즉 신경생물학적 기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발병하는 “반응성 우울증”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퀴블러-로스는 “On Death and Dying”에서 이 두 개념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반응성 우울증”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아마도 정신과의사로서 우울증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량과 시간이 소요되는 큰 영역이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증상의 종류, 심한 정도 및 경과, 유발 요인, 유전성, 병발하는 증상들, 치료 반응 등에서 다양한 우울증들은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분류체계는 이런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⁴² 내가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문외한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자격 자체가 되지 않고, 따라서 발표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할 수도 없을 테지만, 퀴블러-로스의 4단계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울증 구별에 대한 설명을 짧게 인용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적 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이다. 내가 글 쓴 목적은 퀴블러-로스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친의 임종의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을 죽음의 5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좋은 죽음”을 이해하고 실현하는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 생각나는 대로 쓰는 에세이이다.

반응성 우울증 reactive depression

반응성 우울증은 과거나 현재의 상실과 관계되며 주위에 있는 실제상황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다.⁴³ 예컨대 유방암 절제수술이나 자궁암 절제수술을 받은 여자의 경우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충격과 혼란에 빠진 환자가 나타내는 우울증 반응을 상상해 보라. 이 단계의 우울증에 빠져 있는 환자에게 밝고 좋은 면을 보라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41 Ibid, 143.

42 강웅구 등, “정신과 진단체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우울증 개념을 중심으로”, <http://dx.doi.org/10.4306/jknpa.2014.53.5.259>.

43 Reactive depression: loss of self-esteem; guilt; reorganization of household tasks.

“예비적 애도 반응”과 “우울증”에 대한 구별적 이해

예비적 애도 반응과 우울증의 구별 ⁴⁴	
예비적 애도 반응 Preparatory Grief	우울증 Depression:
머리를 쥐어뜯고 육체가 시들고 소진되어 간다	슬픔의 감정이 지속된다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나타낸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죽으려는 행동을 보인다
죽어간다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간다는 것에 불안감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불안감 증세를 보인다
평소 좋아하는 것을 계속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살아 있다	관심과 즐거움의 상실 (무쾌감증 anhedonia), 무망감 절망감 hopelessness 상태를 지속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간다	사회 관계 단절

사별의 슬픔을 준비하고 우울증 현상을 나타내는 예비적 애도 반응

죽음 예감을 통해 느껴지는 “예비적 애도”는 과거의 상실 등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 즉 미래의 상실에 의해 초래되는 현상이다. 이 시점에서 임종환자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단절을 준비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며 죽음의 준비를 하고 그에 따른 슬픈 애도의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 사망한 친지에 대한 슬픔과 애도반응 grief, bereavement은 정상적인 슬픔에 속하는데, 임종 환자가 겪는 슬픔은 애도 반응을 미리 예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단계의 우울증에 빠져 있는 환자에게 좋은 면을 보라거나 긍정적이기 희망적인 생각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반응적 우울증”인 경우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상실감을 이겨내고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예비적 애도” 반응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옹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한다.⁴⁵ 이 단계에서 환자에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면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⁶ 이 예비적 애도 단계에서는 임종 환자에게 희망과 격려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환자가 슬픔에 젖도록 조용히 있는 것이 보다 낫다고 한다.⁴⁷ 따라서 말보다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거나,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과 같은 작은 표현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⁴⁸ 퀴블러-로스의 조언을 인용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잃으면서도 슬퍼하고 있지만, 시한부 환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 모든 이들을 잃어야만 한다. 환자는 곁에서 끊임없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44 <https://nursingandhealth.asu.edu/files/ors/aging/provider-sheets/preparatory-grief.pdf>.

45 퀴블러-로스, “죽음과 죽어감”, 이레 (이진 옮김, 2008), 145.

46 Ibid.

47 “Once you have ruled out depression, you can use the RELIEVER mnemonic as a way to help patients deal with their preparatory grief. Reflect by acknowledging the patient’s emotions. Say something like “I can see that you are sad.” Empathize, by saying something like “I know this is hard for you.” Lead by exploring the patient’s concerns with questions like “What concerns do you have about how your loved ones will cope after you are gone?” Improvise by keeping in mind that every patient will experience preparatory grief in an individual manner.” <https://nursingandhealth.asu.edu/files/ors/aging/provider-sheets/preparatory-grief.pdf>.

48 퀴블러-로스, “죽음과 죽어감”, 이레 (이진 옮김, 2008), 145-146.

수 있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⁴⁹

예비적 애도 반응과 반응성 우울증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종 환자에게 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반응성 우울증은 우울 신경증 neurotic depression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정신분석에서 신경증의 핵심은 불안인데, 불안은 내적-외적 갈등 때문에 발생한 다. 불안은 직접 견디기에는 힘든 정서이므로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게 되는데, 불안을 위장하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반응이 신경증이며, 신경증적 반응의 하나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병적 불안 또는 그런 불안에 대해 신경증적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에 기본적인 취약성이 있음을 시사한다.”⁵⁰ “이것은 환자의 타고난 기질 temperament이거나”, 자연 경과적 신체적인 현상이라면, 이 단계에서 나타내는 예비적 애도 반응은 “임종환자가 자연적으로 겪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인 것이지, 병적인 우울증이 아니다”⁵¹ 라고 보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갖는 생각과 “죽음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의료인들은 이 단계에서 환자가 나타내는 감정과 반응에 면역이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느끼는 심정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49 Ibid, 145.

50 강웅구 등, “정신과 진단체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우울증 개념을 중심으로”, <http://dx.doi.org/10.4306/jknpa.2014.53.5.259>.

51 “Preparatory Grief is a normal, not pathological, life cycle event.”

임종환자는 사별의 슬픔과 애도의 반응을 미리 나타낸다

내게 어머니는 항상 그런 진실된 사람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석양의 실루엣처럼 길게 드리워져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둘 여유나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이 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은 퀴블러-로스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고, 따뜻한 손을 붙잡고, 조용한 묵상과 기도를 하는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죽음학”에 대한 어떤 이론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직감적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인 것 같다.⁵²

임종의 신호 - 머리칼을 쥐어뜯는 행동의 의미

어머님이 선종하시기 전 몇 달 전의 일이다. 간호사가 누님에게 전하길, 어머니께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환자 보호를 위해서 머리칼을 잘랐다고 했다. 환자가 머리칼을 쥐어뜯는 행동은 우울증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상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 임종 환자가 나타내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까닭은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이 결국 이렇게 단지 죽음을 준비해온 죽음의 “준비기간 seedtime”이었던 말인가?하고 생각하며 부질없는 삶의 허무함과 그에 대한 후회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일까? 인생무상이라더니 그렇게 부질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에 불과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만사지탄의 표현일까? 하지만 퀴블러-로스는 그런 자해 행동은 크게 문제가 없는 자연스런 경과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을 상기하자. 퀴블러-로스가 우울증을 2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퀴블러-로스의 이론에 따르면, 임종환자가 머리를 쥐어뜯는 이상 행동은 죽음에 임박한 임종환자가 나타내는 준비적 애도반응이지, 병적 우울증에서 나오는 자해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 분노와 자책감이 일어나 마음의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한다. 상실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심정이 무의식에 깔려 있다고 한다. 임종환자를 보내고 살아 남을 가족들은 애도와 슬픔의 반응을 갖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종환자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와 슬픔을 갖기 마련일 테고, 따라서 임종환자가 이런 우울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신체적이고 자연 경과적인 현상이라고 여기는 의사들의 견해가 타당할 것 같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실을 경험하면 슬픔의 감정을 갖기 마련이다.

내게 드는 생각 하나는 임종환자가 머리칼을 쥐어 뜯는 행동은 머리칼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으려는 의미가 있다고 상상해 본다. 그건 환자가 임종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프로이트의 개념인 삶충동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다른 생각은 머리칼을 쥐어뜯는 행동은 자신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여주려는 시그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인생칠십고려장”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와 같이 노인을 유기하는 “고려장”의 전설을 다룬 일본의 유명한 소설과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을 한 장면이 생각난다. 주인공은 건강하지만 나이 칠십이 되면 영원한 순례길을 떠나야함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70이 되기 전 한 해 전에 건강하던 이빨을 일부러 절구통에 부딪혀 생이빨을 부러뜨린다. 그 같은 행동은 귀신같이 보이게 만들어 자신이 죽을 때라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는 행동이다. 바람에 흩

52 내가 “죽음학”에 관련 책이나 정보를 읽기 시작한 때는 어머님께 돌아가시고 난 후 사별의 큰 슬픔과 애도 감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리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책들을 참고하였다.

날리는 술한 머리칼을 뽑내며 맹수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사자도 죽을 때는 머리칼이 빠진다. 사람도 항암치료 받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우리들이 머리칼이 심하게 빠지면,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머리칼이 빠지는 것은 가족들에게 임종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머리칼을 쥐어 뜯는 행동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신호인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머리칼을 갖고 태어나는데, 언제 머리칼을 자르는가?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상투는커녕 머리칼 단 한 오라기에도 칼을 대지 못하게 했던 우리 조상들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머리칼을 뜯는다는 것은 이상행동으로 보여지기 마련인 것 같다. 평생 머리칼을 간직해 온 여자가 머리칼을 자르는 때는 평생에 걸쳐서 단 두 번밖에 없을 것이다. 한 번은 시집갈 때, 두 번째는 임종의 순간인 것 같다. 여자들은 시집갈 때 그때까지의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혼례 때는 머리칼을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닐까? 여자들이 실연한 경우 속된 말로 고무신을 바꿔 신을 때, 머리칼을 자르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도 옛사랑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사람이 죽을 때는 예전의 유고 풍습에 따라 신발을 지붕 위에 올려 놓는데 이는 사람이 죽어 하늘 나라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외부인들에게 집에 초상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 초혼과 고복의 예를 올리는 풍습에서 여자들이 새 연인으로 돌아설 경우 예전의 사랑이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써 “신발을 바꿔 신는다”는 말을 쓴다.

아무튼 여자들이 머리칼을 자르는 의미는 죽음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무의식 속에 “삶의 본능”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자들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손질을 하고 나서 누군가 알아채고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이 들것 같은데, 여자의 머리카락은 삶본능과 죽음본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신호인 것 같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내가 임종환자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살폈어야 했는데, “삼단 같이 검던 머리 다박솔이 되었”어도, 내가 그것을 몰라본 나의 무지와 무식을 어떻게 탓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무지가 태반이다.

선입관, 편견, 무지

치매의 증상과 대처하는 요령에서 중요한 관점은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어떤 수준과 정도에서 판단해야 하고 또 환자가 보이는 행동을 모두 이상 행동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자의 이상행동에 대한 이해를 영화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을 갖게 되면 간혹 잘못 대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이유가 들기도 한다. 물론 수준 높고 시사적이고 교육적인 다큐멘터리 작품의 존재와 그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영화나 드라마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 만약 학교 공부와 같이 영화나 소설에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나간다면 시청자들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밋밋하다고 여기고 따라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본질은 상업적인 요소를 극대화하여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지, 환자나 그 가족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교육과 상담의 목적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상업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바보상자”라고 비판 받는 TV드라마는 환자와 가족의 대처에 대한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든다. 왜냐하면 생각없이 흥미본위로 시청하는 경우 공감의 원리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5. 수용 단계 acceptance

“수용” 단계는 환자가 이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로써 이제 “모든 투쟁은 끝났음 struggle is over”을 인정하고,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이제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을 순순히 떠나 보내는 “레팅 고 letting go”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단계에 해당한다. 우울한 기분에 접어 있는 상태하고는 달리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는 “almost void of feelings”의 포기 즉 체념 resignation의 감정 상태라고 한다. 이 최종적인 단계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내가 다하지 못한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어떤 할 말이 더 이상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니, 내 인생의 긴 여정을 접고 이제 편안하게 간다”는 심정을 갖게 된다고 한다. 떠날 준비를 갖추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상태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어떤 관심사를 보이거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누가 가만히 앉아서 환자 자신의 손발을 잡아 주길 바란다고 한다.

슬픔, 상실감, 죄의식 등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 제공

퀴블로-로스(Quill)는 말한다. “우리가 다루는 환자 대다수가 ‘수용의 단계’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다. 공포와 절망을 초월한 실존 상태에서 죽는 것이다. ... ‘영아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요구는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시기였다. 정신분석학은 영아기를 피동의 시기요 1단계 나르시시즘의 시기라고 본다. 그러나 그 시기야말로 자아가 모든 것을 체험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일하고, 주고받고, 희로애락을 맛본 후에 인간이 출발한 그 단계로 되돌아감으로써 인생의 주기가 끝나는 것이다.”(퀴블로-로스: 1979,178).

임종 전 마지막 마음을 정리하는 단계

내가 어머니의 병문안을 갔을 때 언제부터 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운명하시기 1년-6개월 전 시점부터는 어머니가 나에게 바깥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오는지, 밥은 먹었는지 등 항상 물어보는 상투적인 질문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다. 아마도 임종 6-8개월 전부터 평소 좋아하시던 두유 음료수, 요구르트 등 주스 음료도 잘 드시지 않으셨던 것 같다. 나에게 한 번도 무슨 부탁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나는 직접 들어 보지를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누님에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마지막으로 큰 아들을 보고 싶어했다고 한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큰 아들을 만나 보고 싶어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승을 하직하기 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며느리와 의 불화를 털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나는 추측해 본다. 며느리와 의 불화를 겪은 이후로 쌓였던 그런 전통적인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회한과 서로간의 쌓였던 원망들을 털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큰 아들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면 아마도 수용단계이었던 것 같다. 이 때가 “타협” 단계인지 아니면 그 이후 “우울”, “수용” 단계인지 나로써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퀴블러-로스도 임종의 5단계 과정은 꼭 순차적인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퀴블러-로스의 이론에 따르면, 임종 환자가 설령 무엇을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고 여기더라도 모두 정리하고 떠나 보내는 “레팅 고 let go”의 태도를 갖는다고 말한다.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에 죽음에 이르기 전 최소한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마음의 감정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의식이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라고 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 같다. 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 위하여 그간 쌓아온 어떤 오행나 원한들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고자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 사람들은 용서를 자발적으로 구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죄책감이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화해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털어내지 못할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이유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죄책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어적 심리기에 그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사람은 임종하기 전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편안히 눈을 감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임종 순간에는 환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환자에게 건네는 말도 조용히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람들은 환자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 같다. 죽음의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 자신이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와 그를 보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예기치 않게 급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미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killing”의 자책하는 감정은 어릴 적 어린 아이들은 강아지가 병사해도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자책감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또 용서를 미리 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늦추고자 하는 경향은 유언을 미리 못하는 이유하고 비슷하게 인지상정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이 닥치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허망하게 끝나버려 영원히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voluntary” 나타내기 보다는,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나서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다. 스스로 자선을 베푸는 일이 무척 어려운 것과 같이,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이 스스로 용서를 구한다거나, 스스로 자진해서 술선수범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토록 인구에 회자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특별하게 설교한 이유는 그만큼 보통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갖게 하여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이 자신의 자유 의지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 의지는 인간이 가진 특권의 하나에 속하겠지만,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제적인 제약을 겪는 것 같다. 이러한 인간의지와 환경의 근본적인 철학적 사고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서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는 것 같다.

퀴블러-로스의 이론에 따르면 마지막 임종단계에서는 임종환자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위로의 말은 큰 효과가 없다. 그대신 환자에게 조용하게 대해거나 편안하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보다 옳다고 말한다.

그동안 임종환자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편안한 용서를 구하는 자세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돌아온 탕아”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스스로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가가는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은 마지막 떠나는 길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자신의 마지막 관리통제의 힘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 남아 계속 생을 살아가는 환자의 가족의 경우 그 동안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마지막 임종 순간에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종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 즉 환자가 자신의 힘과 인간의 완전성과 존엄성을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우 그 동안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자책의 부담으로 벗어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임종의 순간은 심리적인 죄책감과 정신적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성스런 기회이다.

내 자신의 경우를 돌아보자. 자식으로서 불효와 내 모든 잘못에 대해 미리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병문안을 가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들판의 헛불처럼 일어나도, 막상 가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어머니, 내일 또다시 찾아 뵙게요.” 이런 거짓 인사말-(다시 방문한다는 말을 해놓고선 그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다)을 드리고 병상을 나와 버리곤 했다. 마지막 최후의 임종 순간에서 “어머니, 천국 가시는 길에 편안히 가세요.”라는 말이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나는 꿈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죽음의 병상을 묘사하는 수많은 소설들을 읽어 보면 마지막 임종 순간에서 서로간에 대화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과는 다른 작가가 가공한 허구적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유명한 워싱턴 대통령 죽음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렇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공한 이야기들로 들어차게 된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대해 보다 진실한 장면은 릴케가 전하는 중세 독일국왕이 임종하는 장면일 것 같다. 그 왕이 임종 순간에서 남길 수 있었던 말은 겨우 “죽음”이라는 단 한 두 마디에 지나지 않았다고 릴케는 전한다. 릴케의 이야기를 근거삼고 또 내가 경험한 모습을 보태어 판단컨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임종 순간에서 수많은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은 그야말로 소설같은 허구적인 이야기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의 병상을 묘사하는 장면은 가족과 같은 소수자에 불과할 텐데, 그런 관계자는 감정이 결부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실적 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소설의 대부분은 작가의 직접적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들은 바를 대신 전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소설같은 허구이고, 영화같은 환타지이고, 드라마같은 조작에 해당되고 만다. 마치 그럴듯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연출대로 따라 하는 허구적이고 범용화된 이야기가 자신이 한 두 번 밖에 경험하지 못할 죽음과 같은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 같다. 사람들이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는 어떤 한계가 크게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찾아온다. 다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죽음은 항상 너무 빨리 찾아오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찾아온다.” “시간과 조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⁵³

저무는 시간

내가 병문안을 갔을 때 언제부턴가 어머니께서 내게 “이제 집에 가라”는 말을 했다. 이 때가 퀴블러-로스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대로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뜻을 보인 죽음의 수용 단계에 접어들었던 상태였던 것 같다. “이제 집에 가라”는 말씀이 내가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이 힘들 테니 그만 두고 이젠 내 혼자

⁵³ “Death always comes too early or too late.”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있고 싶으니 그만 집에 가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릴 적 어머니 발 마사지를 해드린 시간은 고작 10분도 안되었을 테지만 어머니께선 내발마사지를 1시간도 훨씬 넘게 해주었던 기억을 상기하면 그렇다) 이제는 자신의 보호자인 자식들에게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애원한 부탁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지 오래되었고 이제 곧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그것을 알리는 의미였을 수도 있다. 그 이전에는 내가 행하고 왔다가 행하고 가버리는 무정한 불효자식임을 알면서도 이제 그만 가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가 황혼녘 실루엣처럼 너무 크게 드리워졌음을 알고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기쁨"이라는 생각에서 내가 마사지 하는 것을 멈추고 그만 집에 가라고 말씀한 것일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은 마다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어머니께선 미리 사별의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준비하신 것 같다.

나는 3-4년 전쯤에 어머니 병문안을 가서 어머니한테 한국동란 때의 경험을 구술 받고 싶은 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와의 긴 대화를 진행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다. 언제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돌아가시기 전 1달 전에 어머니께선 왼손으로 병상 침대 받침대를 꼭 붙잡고서 반쯤 앉아 계셨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시고 힘들어 하셨다. 그러나 어머니께선 "차라리 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죽음의 재촉 반응 desire for hastened death"같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은 한번도 들어보질 못했다. 사람은 죽음의 병상에서도 손을 꼭 붙잡는다고 하는데-이건 내가 어머니 손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을 때 느낀 사실이다-, 그것을 보면 사람은 의식이 없는 상태-무의식으로도 삶충동이 작동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희망의 끈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님과 마지막 대화-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

“내 아들이요.”

“할머니는 죽었다.”

“이제 집에 가라.”

“내 아들이요.”

어머니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산소호흡기를 장착하고 있었으므로 이날 병상에서 내가 어머니하고 나는 대화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병상 침대에 눕지 않고, 왼쪽 손을 침대 받침대를 꼭 잡고 반쯤 비스듬히 앉아 계셨다. 이 때 의사가 회진하려 들렀다. 내가 어머니의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의사가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다. 내 생각에, 의사의 말투와 다가오는 자세에서 어머니께선 내가 누구인지 날 잘 알아보질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누구인지 알아 보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내 아들이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날 병상에서 어머니께서 의사하고 나는 이 한 마디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되실 줄을 나는 꿈 속에도 미처 알지 못했다. 그 날 이후 내가 다시 어머니의 얼굴을 본 날은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산소호흡기를 장착한 이후였고,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서는 내가 어머니의 눈빛으로만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조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죽었다”

이 때 어머니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어머니께서 자신의 어머니이신 할머니(나의 외할머니는 나이 80세 넘어서 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할머니는 요?”라고 질문했다. 어머니는 “죽었다.”라고 간단하게 즉답했다. 할머니는 “죽었다”라는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만큼 살았으면 결국 죽게 마련이고, 이것이 사람의 타고난 운명 fate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수 있겠고, 또는 그래도 할머니는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좋은 죽음 good death”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내가 되물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운명 fate의 자연 법칙을 사실로써 받아들이는 말씀 같았다. 최소한 내 느낌에 어머니께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운명을 맞이한 어떤 위인의 유언,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임무를 다 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는 뜻이 들어 있는 분위기 같았다.

할머니가 생각나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어머니는 당신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였을까? 그것까지를 내가 알 수 없지만, 어머니의 “할머니는 죽었다”는 말에서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재생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아니면 어머니의 그 대답은 아무런 감정이나 정서가 실려 있지 않는 등 사무소 행정 직원의 단순한 사실 확인 작업에 불과하였을까? 또는 자신의 임종을 비취주는 거울이고,⁵⁴ “체념”이었을까? 나는 어머니의 그 대답에서 사람의 육체는 보이지 않게 소멸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음을 느꼈다. 사람이란 존재는 육체와 마음과 가슴과 영혼과 오장육부를

⁵⁴ 자책감 guilt은 임종 환자가 갖는 가장 뼈아픈 감정이라고 한다. “Guilt is perhaps the most painful companion of death.”, Kubler-Ross, "On Death and Dying", 1969.

가진 하나의 전체 우주와도 같은 통합적인 영혼의 존재라고 이해한다면, (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라고 여긴다), 사람의 사망에 대한 판정은 적어도 의사가 내리는 공식적인, 의학적인 판정 기준과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기 전에 영혼이 분리된다거나, 섬망이 일어난다든가, “사후의 세계”를 체험한 “근사 near-death experiences”의 실재 여부는 차치하고서, 의학적인 사망 판정이란 단지 “육체 body의 소멸”이란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지? 하버드 의대의 뇌사 판정의 기준을 참고해 보자.

“이제 집에 가라.”

나는 조용히 앉아서, 어머니의 발을 마사지해 드렸다. 내가 어머니 발을 주물러 마사지 해주니까 어머니 께선 “아야! 아프다! 그만 해라.”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 어릴 적에 엄마가 내 발 마사지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시원하고 좋았거든요.” 팔송 가사이기도 한데, “내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요. 내 손끝으로. 발끝으로 느낄 수 있어요. 발끝으로 느낄 수 있어요”가 생각한다.

*슬픔을 느끼고 또 꿈을 만져보면
내 맘속 모든 게 선명해지고
삶을 느끼고 또 사랑을 만져보면
이 세상 모든 게 또렷해져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기억은 사실일까? 아니면 환타지일까?

죽음에 대한 개념-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턱을 넘기 힘든 이유-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카프카, 지드 등의 대륙국가 사람들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사람들은 경계선, 대문, 문턱을 넘기를 매우 힘들게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문턱, 문지방을 넘기를 매우 힘들게 여겼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들어가는 대문은 타인과의 경계선이고, 방문을 넘고 들어가는 문지방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바깥과의 경계선이였다. 마을의 경계선인 동구밖에는 장승을 통해 경계를 표시해 놓았고, 또 좀더 범위를 확장하면 공동체 사회의 경계선을 자연적으로 구분지어 주는 높은 산의 고갯길은 매우 넘기 힘든 장애물로 여겨왔다. 이런 문턱에 대한 개념은 죽음의 경우에도 스며들어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또한 자연적인 대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였다. 이런 두려움은 민간 신앙과 무속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유교장례식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형제 벗이 많다 험들 어느 누가 내 대신 같거나 이승의 이 길을 하직하고 저승에 갈라니 내 못가겠다. 일만 하다가 나는 가오. 일만 하다가 갈라고 하니 못 가겠소 못 가겠소. 참말 원통해 못 가겠소.”- 이 표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장례식에서 부르던 상여 소리의 일부분이다. 이런 상여 소리 가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주의적인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영미인들에 죽음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른 것 같다. 장례식 이후 49재까지 치르는 불교 의식이나 전통적 유교 장례 의식을 통해 보면 사후 세계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예전처럼 사람들의 죽음은 예측 불가하고 대체로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는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음이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었거니와 또 그에 대한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사후에 최소한 49재를 걸치면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영미국 사람들의 기독교의 문화는 미리 죽음을 예정하고 미리 준비하기에 죽음이 일어난 이후의 사후세계를 강조하기 보다 죽기 이전의 살아 생전의 삶에 집중하는 것 같다. 영미국의 신탁 제도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크게 발전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영국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외국의 전장터로 나가기 전 자신의 만약의 죽음에 대비하여 미리 상속과 재산 문제 등을 유언 또는 신탁 문서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확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나가므로 전쟁에서 죽더라도 살아 남은 후손들은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 십자군 전쟁의 참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해 놓는 신탁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보다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 병상에서 대화를 통해 느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체념 resignation의 분위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며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이 보여진다. 나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할머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죽음”이란 말을 단어를 말했는데 내가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겠는가? 나는 릴케의 수기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릴케가 쓴 “말테의 수기”에 나오는 “왕의 임종을 앞둔 세 시간 전의 기록”이라는 메모는 크리스티안 4세 독일제국 국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왕이 죽기 세 시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사실대로

기록한다. 왕은 당시 무척이나 침대에서 일어서기를 원했다. 의사와 다른 시종이 왕을 도와 일으켜 세웠다. ... 왕은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 왕은 가끔 고통스럽게 거친 목소리로 말 한 마디를 내뱉었으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의사가 왕에게 조용하게 말을 걸어 왕이 하고 싶은 속내가 무엇인지 알아내 보려고 했다. 그러다 잠시 후 왕은 의사의 말을 중단시키고 갑자기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어, 의사, 의사,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의사는 생각해내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슈페를링, 폐하.” 그러나 그건 그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왕은 의사가 자기 말을 이해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아 있는 오른쪽 눈을 크게 뜨고, 정색을 하며, 그가 몇 시간 전부터 입으로 말 한 마디를 꺼내려고 노력한 그 단어를 말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말 한 마디였다. ‘죽음.’”⁵⁵⁵⁶

궁중 왕실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보호를 받으며 임종을 맞이하는 왕도 임종 순간에 남길 수 있는 말이라곤 겨우 “죽음”이라는 단 한 두 마디에 지나지 않았는데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임종 순간에서는 수많은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야말로 소설 같은 허구에 가까울 것이다. 임종 환자가 임종 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독일국왕의 사례로 보아 충분히 확인된다.

평화로운 임종의 모습과 고통 없는 죽음

내가 마가복음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며 겪는 예수의 고통의 장면을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는 모든 괴로움을 토로하고 고통의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소설과 영화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그 배경에는 나쁜 죽음과 좋은 죽음의 구별을 하고 나쁜 죽음은 고통의 죽음이고 이 고통은 신의 벌의 결과라고 믿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죽음에 관한 임상 연구 논문 (“Science and Immortality” (1906))에 따르면 임종 환자의 90%가 고통을 느낀다. 임종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하기 시작한 때는 19세기 초반부터 이었는데 임종 환자는 거의 절대 다수가 고통을 느낀다. 병원에서 고통을 줄이는 진정제를 처방하지 않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 실제의 임종의 모습은 임종 환자 대부분이 숨을 거칠게 몰아 쉬며 임종 호흡을 하는 증상은 거의 절대 다수에게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실제적인 죽음의 모습을 감안하면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평화로운 죽음의 장면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닐 것이다.

예수의 죽음의 모습을 상기해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그렇게 절규하는 예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지 못했다 해도 실제로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생 이빨을 빼는 고통을 느낄 때 절규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으로 절규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예수의 모습은 다른 변명의 말이 필요 없이 사실 고통의 모습 그대로이다. 예수님이 내뱉은 그 말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하나님, 제가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였으며 저

⁵⁵ Rainer Maria Rilke, “The Notebooks of Malte Laurids Brigge”, Penguin Classics.

⁵⁶ “He had no notion of the passage of time; death was a minor incident which he ignored completely and those who were lodged in his memory continued to exist and their dying altered nothing whatsoever.”

는 이제 사람으로서의 저를 버렸습니다!”라는 의미로써 해석하더라도 예수님의 느낀 고통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이다.” (시편 22:1-2).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이다.”(시편 22:14-15).⁵⁷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And Jesus cried with a loud voice, and gave up the ghost.” (마가 15:37).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는 모든 괴로움을 토로하였고, 고통 속에서 외마디를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절명했다.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 하랴!

말기 진정 palliative sedation

병원에서는 대개 말기 진정 완화 치료를 하고 통증 완화제 모르핀을 투여한다. 유럽국가에서 모르핀 투여는 19세기 전반부터 처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국에선 통증의 완화제로 아편이 사용되었다. 현대에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임종 직전 말기 진정, 통증 완화를 처방하지 않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⁵⁷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why art thou so far from helping me, and from the words of my roaring? O my God, I cry in the day time, but thou hearest not; and in the night season, and am not silent.” (Psalm 22:1-2). “I am poured out like water, and all my bones are out of joint: my heart is like wax; it is melted in the midst of my bowels. My strength is dried up like a potsherd; and my tongue cleaveth to my jaws; and thou hast brought me into the dust of death. (22:14-15).

프로이트와 라캉의 “삶충동 Life Instincts”과 “죽음충동 Death Instincts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삶충동 Life Instincts” (성충동과 자기보존충동을 결합한 개념으로 “에로스 Eros”)과 “죽음충동 Death Instincts (유기생물체를 파괴 해체하여 본래의 무기물상태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타나토스 Thanatos”)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이 두 충동간의 갈등과 타협으로 과정이고,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기세계와 외부세계에 대한 파괴 충동의 죽음충동은 삶충동과 야누스적인 (또는 쌍둥이이건) 동시 존재한다는 개념은 억압된 성욕의 조절 실패 또는 고통에 의한 충동을 설명하는 정신분석학의 기본적인 가정을 흔들리게 하는 것 같다. 자동차엔진처럼 반복 활동의 피스톤 운동은 결국 폭발하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 상태로 전환된다. 대립은 정-반-합의 통합이론처럼 제3자의 결과물이 나오는 발전과 흐름의 과정이지 도르래 오르내리듯이 양극단의 끝없는 상호반복의 정체된 상태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마음 속에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함께 하지만, 어머니와 아이를 연결시키는 감정은 사랑이고, 아이가 커서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은 증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 사이에 싸움을 불러오는 것은 꼭 증오의 감정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다. 증오가 항상 파괴와 단절을 이끄는 것도 아니다. 삶충동과 죽음충동의 개념도 인간이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장사치가 손해보고 판다”,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는가? (여기서 환자가 “빨리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심한 상태 “active desire for death”의 우울증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그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 단계 상황에서는 퀴블러-로스가 강조한 바대로 예비적 애도 반응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기초가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의도와 표현은 차이가 날 수 있고, 따라서 숨은 의도를 감안해서 되도록 편안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삶충동과 죽음충동은 서로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호배타적인 성격에 가깝다. 이솝 우화에서 한 입으로 온기를 불어넣었다가 다시 냉기를 불어 넣은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화가 말해주는 교훈으로 생각해 본다면, 프로이트의 이론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다. 임종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한 통계를 보면, 100명의 암으로 인한 임종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최후의 6시간 동안에는 8%만이 의식이 있었다) 손을 짝 붙잡는 행위는 내 어머니의 임종 순간에 나도 경험했는데 이런 임종환자의 마지막 순간의 행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바로 전에 언급한 이솝 우화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 한 사람이 숲 속에서 길을 잃었다. 숲 속을 헤매던 중 숲 속 나라 요정들이 사는 동굴의 집을 발견했다. 숲 속 나라 요정들은 길 잃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 사람은 집에 들어서자 입으로 손에다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고 손을 비비고 뜨시게 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뜨거운 스프가 나오자 다시 입김을 불어서 스프를 식혔다. 이것을 본 숲 속 나라 요정들은 이 사람에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집밖으로 내보냈다. 그 이유는 한 입으로 뜨겁고 차가운 것을 동시에 부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화가 말해주는 것처럼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야 하지 않을까?

다시 어머니의 상황을 이어간다. 어머니께선 이제 내게 어떤 말을 계속 하려거나 어떤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하신 것 같았다. 바깥 세상의 소식이나 나에 대한 관심도 더 이상 물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제 그만 집에 가거라”는 말을 했다. 어머니는 평소 좋아하시던 콩 우유나 주스나 음료를 더 이상 들지 못했다. 이날 나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점심을 드리는 점심 시간 때에 병원에 들렸다. 점심 식사-식사라고 해봐야 푸른 색의 미음 죽이었다-가 병상으로 들어 왔다. 그 이전까지는 쇠고기 국물이라도 있는 밥이었는데 그날 보니 죽이 나왔다. 나는 평소 어머니께 직접 스푼을 들어서 밥을 입 속에 넣어 드리는 따스하고 정겨운 스타일이 되지 못하고, 대개 무뚝뚝하고 닭 지붕 쳐다보는 격의 그렇게 닭살 돋는 차가운 모습인데, 무슨 연유해서인지 그날은 내가 스푼으로 어머니 입에다 모두 넣어 드렸다. 그 이전까지는 어머니 스스로 스푼을 사용해서 식사를 드셨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어머니가 그 죽을 다 드시게끔 내가 직접 스푼으로 어머니께 떠 먹여 드렸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일 될 줄이랴! 나는 꿈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평소에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봉양하지 못했던 이 불효자로서 막심하게 느껴지는 때늦은 후회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불치병에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떨칠 수 없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그 동안 어머니는 지탱을 꽉 잡은 손목의 힘- 장악력 grip strength-도 강했고, 최소한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밥, 미음, 죽-을 드실 정도이면 내 생각으로 최소한 임종이 곧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판단 착오이었음이 드러났다. 돌아가실 때는 정때기를 한다거나, 천국 행차 길에 행여 누가 따라 올까 봐 최후의 순간에서 어떤 트릭을 쓴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일까? 내가 순진한 상상력으로 말해 본다면, 사랑한 사람이 자신의 임종 모습을 보면 먼 훗날까지도 자신을 회상하고 탄식하며 회한의 슬픔을 지닐 것 같이 생각되니까 자신의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에 따른 생각인데 지금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은 거의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 것을 볼 때 재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내가 조금 낙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어찌됐든 사람은 식욕을 잃지 않고 식사를 계속하는 한 최소한 삶이 연장된다는 어설픈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에는 어떤 음식이나 물도 마시기 힘든 상태가 된다.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음식물을 입으로 삼킬 수가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임종이 바로 임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원인은 내가 유량 flow 개념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장 stock 잔고 개념이 부족했던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6. 희망의 단계 Hope

희망의 끈은 언제 놓을까?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과 소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가?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환자가 겪는 심리 상태를 다섯 단계로 구분 설명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 또는 죽음이라는 극한상황에 대처 방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가 각각 다른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지만 때로는 두 단계가 공존하기도 한다. 이 5단계 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걸쳐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한다.⁵⁸ 퀴블러-로스가 별도로 분명하게 구분한 단계는 아니지만 1-5 단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입된 반응은 “희망”이라는 심리 상태라는 것이다. 임종환자가 수용단계에 이르는 경우라고 해도 최종적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의 심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비록 퀴블러-로스가 “희망”의 과정을 1-5단계처럼 공식적인 단계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임종환자에게도 희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죽음의 5단계를 요약해서 보여 주는 그래프 모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계단같이 올라가는 퀴블러-로스 죽음의 5단계 이론에서 희망의 단계는 별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희망은 전 단계에 걸쳐서 혼재한다. 이를 정리해 놓은 퀴블러-로스의 그림인데 희망은 맨 위에 위치하고 있고 희망은 전 단계에 혼재한다.

퀴블러-로스는 “희망이야말로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환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환자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문을 열어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살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⁵⁹고 결론짓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제목의 8장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희망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⁶⁰

죽음의 최후의 순간까지 즉 “갈등과 두려움, 희망이 공존하는 삶의 마지막 시간”에 까지 사람들은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퀴블러-로스는 그 책에서 타고르의 시와 나치 수용소 담벼락에 남겨진 시를 인용하고 있다. 위대한 사람의 생명력과 신성함을 날게 하는 힘은 희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시를 여기에 인용한다.

어느 일요일 오후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 전율감이 느껴지네요.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을 보고서
나는 살며시 미소 짓고 마네요.
온 세상에 꽃이 피어나 웃고 있네요.
난 어디로, 얼마만큼 높이 날아갈까?
철조망 안에서도 생명이 충만한데,

58 퀴블러-로스, “죽음과 죽어감”, 227.

59 Ibid, 53.

60 Ibid, 225-254.

나라고 못할 리가 있나요?

난 결코 죽지 않아요!”⁶¹⁶²

희망의 창문은 언제 닫히는가?- every entrance is also an exit

임종 환자가 갖고 있는 희망의 기대는 임종 환자의 가족이 갖는 생각과 의료진이 갖는 생각과는 간극이 존재하고 또 이들 사이에 갈등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러한 갈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보충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은 창문을 내다본다. 가끔씩이라도. 아니면 날마다. 창 밖에는 무언가가 보이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오고 그 땀 삶이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다. 사람이 자신의 삶이 거의 끝났음을 자각할 때 언제 창문을 닫을까? 어머니는 항상 희망의 창문을 닫지 않았다. 희망의 창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인 레오나르드를 떠올렸을 것이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을 때 옆 병상의 할머니께서 하는 얘기가 내 귓전에 들려왔다. 내가 국제변호사라는 그런 개인적인 사실 이야기는 옆 병상 할머니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옆 병상 할머니께서 내 어머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나의 개인적인 사실 이야기라면 내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다. 어머니께서 당신의 고통을 내가 언젠가는 성 레오나르드처럼 다가와 모든 결박받고 감금받고 구속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날 해방시켜 주는 성인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하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테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는 힘

성 레오나르드는 신비한 약초와 한방의학과 대체의학의 효능을 통해 아픈 팔다리를 낫게 하여 산과 들을 맨발로 자유롭게 달려 다닐 수 있게 하는 치유의 성인이고, 또 족쇄를 차고 감금을 당하고 속박과 굴레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결박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선사하는 성인이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 치유하기 위해서는 산 속의 수도원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산 속에 들어가면 들판을 나올 수가 없다. 자유와 구속은 시이소오 관계에 내이는 것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결박과 속박을 받아 들어야 한다는 것. 치유를 하려면 결박과 속박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타율과 자율이라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고, 속박이라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치유의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자율이고 자발적인 확신과 신뢰의 문제일 것이고 그에 따라 고통은 희망의 빛으로 감경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듣고 일어서, 그리하여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다” 말하며 정의와 진실과 진리의 길을 걸었던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의 연설 구절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는 성경 구절을 길게 외우기도 하셨는데, 사람의 기억력은 노화의 진행과 함께 쇠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61 1944년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에 이름 모를 아이가 수용소 담벼락에 남긴 시. 퀴블러-로스, 227쪽 재인용. 이 시가 보여준 바와 같이, 100여 명만이 겨우 살아남은 테레진 수용소의 막사에 갇혀 있던 15세 이하 1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하며, 퀴블러-로스는 이 시를 인용하고 있다.

62 “The sun has made a veil of gold / So lovely that my body aches. / Above, the heavens shriek with blue / Convinced I've smiled by some mistake. / The world's abloom and seems to smile./ I want to fly but where, how high? / If in barbed wire, things can bloom / Why couldn't I? I will not die!...”

어머니께서 젊으신 시절에 구절초 익모초 등의 약초를 캐고 약을 달여 드시기도 했는데, 낙상하고 무릎이 굳은 마지막 순간까지 치유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기대하였고, 그 희망의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셨다. 어머니께선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희망을 놓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다섯 처녀처럼 항상 희망의 등불을 켜놓고 계셨다. 하지만 이를 어찌하라! 이제 어머니는 영원한 길로 떠나셨고, 그리하여 내가 어머니의 고통을 언젠가는 기쁨으로 전환해 드리라는 나의 위대한 희망은 거대한 착각이 되고 말았다. 이게 나의 슬픔이고 회한이다.

V. 임종의 순간

마지막 임종의 병상에서 어머니를 위한 기도문

마지막 날 오후, 시시각각 급변하는 병상 옆의 모니터의 수치와 그래프의 변동만큼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신호가 내 가슴 속으로 밀려 왔다. 나는 급하게 내 노트북을 열고 성경의 시편을 포함하여 기도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Your Mother Is Always With You.”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자 나는 어머니께서 어쩌면 오늘 밤을 넘기시기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병원 문을 나가 병원 옆 작은 산길을 급하게 달려 오르며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했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내가 밖을 나가면 안되는 순간이었다. 임종의 순간 멀리서 찾아오는 자식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숨이 넘어가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잠시 방안을 나간 바로 그 사이에 운명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미신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 병실을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 옳았다. 병원은 환자의 방문 시간이 저녁 9시 까지로 제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밤 중에 돌아가신다면 누군들 어쩔 수가 없었다.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 받는다. 그 중 으뜸은 23장이 아닐까 싶다. 시편 23장 말씀을 읽어 보면, 우리 삶의 문제는 '부족함'과 '두려움'에서 생긴다고 한다. 루즈벨트가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그 자체 즉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인간사회의 문제점들은 뉴딜정책처럼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가장 잘 사는 풍요의 나라 미국에서조차도 길거리의 노숙자나 굶어 죽는 사람은 넘쳐 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삶의 4대 공포증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 계산하면 더욱 그러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많고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두려움은 있단다. 죽음의 운명이 주어진 한 인간인 이상 어느 누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행복함이란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이건희 회장도 행복함과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삶의 소용돌이에서 공포감은 죽음의 전율같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삶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상어의 입으로 삼켜버릴 것 같기도 한 암흑 같은 두려움의 정체, 삶의 공포는 무엇이었던가? 국가의 억압체제와 개인의 자유문제에 대한 토마스 홉즈의 책을 다시 펼쳐 보면서 공포와 안전의 상치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다.

The Lord is the One who goes before you, and
He will be with you; He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 be not afraid or dismayed.
(DEUTERONOMY 31:8)
여호와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성경 신명기 말씀.)

주님은 항상 함께하신다.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

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이다.”⁶³

어머님의 유언

어머니께서 상조 보험에 가입한 까닭은

어머니께선 남길 유산이라고는 시골의 전답 딱 한 두 평 밖에 없어서 자식들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날 수조차 없는 평화를 가졌다. 평소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당신의 사정으로 보아 죽을 때에는 병원 신세를 질 수 밖에 없음을 아시고 오래 전부터 당신은 죽어서 행여나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 열망으로 장례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유언을 남겼다. 어머니께서는 상조회사에 장례식 보험 가입을 미리 해 두었는데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분명하게 해두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유언을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보험모집인을 통한 보험 가입이었는데 보험모집인의 조금 과장된 약속이 없었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보험을 통한 유언 방식은 어머니께선 죽어서도 자식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당신의 가장 큰 약속이자 배려이었다. 어릴 적엔 방 장판 밑에다 얼마를 숨겨두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비상금으로 사용하셨고, 항상 그런 걱정의 어머니이셔서 당신께선 오래 전부터 당신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을 해두셨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무슨 별도의 걱정과 당부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상조보험에 들면 임종 시 상조회사에다 전화 한 마디 연락만 하면 장례식을 일괄 처리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10년여 지난 오늘 그 때 당시 나누었던 자세한 액수까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조 보험에 들었으니 장례에 대해서는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께선 보험금 얼마를 보험모집인을 통해 어떻게 냈다는 상세한 사실들을 자세하게 내게 말씀해 주셨다. 상조 보험을 너무 일찍 들어서였을까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는 상조 보험 얘기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것은 우울한 단계이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른다. 아무튼 병원 신세를 지기 이전부터 상조 보험 가입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셨던 까닭은 어머니께선 사후에도 자식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매우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께서 상조 보험 가입을 하고 신신당부한 이유는 자식들에게 죽어서도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희망 그리고 당신이 남길 큰 재산이 없다는 아쉬움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옹광로 같이 타오르는 황혼 녘의 불꽃이었으리라. 프로이트가 말한 삶충동과 죽음충동이 마치 중기기관의 실린더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만들어내는 마력이었으리라. 당신께선 살아서 육신이 아프고 다쳐서 병원 신세를 졌는데 이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사후에 자식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한 자기 의지의 영역에 속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자유 의지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의 결과이었다. 가장 확실한 보험 가입을 통해서 당신의 자유 의지를 분명하게 선택했던 것이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라도 선택의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63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사람은 죽음의 때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있는가?

대화를 나누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내가 급한 전화를 받고 어머니의 병상을 다시 찾았을 때는 어머니께서 이미 산소호흡기를 장착한 뒤였다. 다른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예전에 응급 산소호흡기를 장착한 적이 있어서 그 답답한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산소 호흡기는 연명치료의 가장 상징적인 산소 호흡기이고 또 임박한 임종 신호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산소포화도 계기판이 부착된 마지막 임종 순간이 임박했음을 깜박 잊어 버리고 있었고 또 그렇게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전까지 죽음의 병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어떤 실감을 느끼지 못한 탓이기도 했으나 내 스스로 어떤 지식과 경험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 이삼일 전 거칠게 숨을 몰아 쉴 때에도, 또 모르핀 진통제 주사액이 투여된 마지막 날까지도 나는 어머니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자각하지 못했다. 나는 제왕절개 수술이냐 여느 중환자실에서처럼 어머니께서 다시 생명의 생기가 되살아날 것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다. 죽음의 순간은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누군가 말하던데 내가 그렇게 꿈과 현실 사이에서 환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영국의 BBC 에서 방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도 있긴 하지만 사람의 마지막 임종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에게 진정제가 되었는데도 모르겠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우리 속담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식을 통해서일 것이다. 내가 임종의 증후에 대한 산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면 내가 좀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잘 지킬 수 있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내가 임종의 순간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더욱 크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파스칼이 얘기한 바대로, 우리 인간은 가장 약한 갈대이지만 가장 원대한 우주의 신비를 찾아갈 수 있는 모순적인 존재인 것 같다. 가장 캄캄한 밤하늘에서 은하수의 별은 더욱 빛나지 않던가?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임종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나 또한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간호사가 마지막 임종직전의 선언을 할 때 나는 “잠깐만!” “아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임종환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서는 편안히 눈을 못 감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임종환자들은 의학적인 판단으로 내리는 정형화된 기준보다 더 오래 목숨을 지탱하는 경우가 있다고 있다는 사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그런 기적을 믿고 간호사에게 “잠깐만 hold on”이라고 외쳤던 것이다.

어머니께건 산소호흡기를 장착하였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어머니하고 더 이상 어떤 육신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임종환자는 비록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을 지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병상의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하고 눈빛과 가슴과 귀로써 대화를 나누었다. 병상 곁에서 우리는 말하고, 어머니께서 침상에서 누워 보고 듣고 계셨다.

임종 환자의 투병 생활 과정에는 “고통이 멈추는 시점, 꿈을 꾸지 않는 상태로 마음이 빠져 나가는 시점,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 주변상황에 대한 의식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시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어머니는 병상의 모니터 그래프가 땅이 꺼지고 지진이 일어 나는 때처럼 시시각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각의 시점인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 깊은 잠에 빠져 든 사이, 나는 조바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물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오래 가실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오늘 밤은 괜찮을까요?” 나는 이런 질문들을 해 보았다. 나의 이런 우문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니, 의료진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나의 우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정해진 현답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낡은 레코드판 돌아가는 소리처럼, 뻘한 대답이 돌아오더라도 또 질문했다. “그래프는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이에 대해 의사는 “그래프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가 위험 신호”라는 대답을 해주었다.⁶⁴ 이미 산소호흡기 장착한 날부터 산소포화도가 20% 이하로 내려갔었고, 맥박 호흡 그래프가 불규칙하고,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또 경고 등이 자주 울렸는데도 대답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현답이었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 나는 급하게 돌아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다시 간호사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간호사는 청진기를 어머니 가슴에 대고 호흡과 심장박동을 점검하고 오른팔에 혈압을 점검하고 나서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다”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사람의 생물학적 육체 기능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가?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었고, 그 동안 모든 병원 일을 책임지고 있는 동생이 말했다, 이미 산소호흡기를 장착한 이상 어떻게 달리 이동할 방법은 없다고. 법적으로 보면, 병원 의사가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못 이겨 퇴원을 허락할 경우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병원이 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종환자에게 환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임종환자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후송하여, 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 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면 살인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세상사에 경험이 많은 동생, 형님들께서 어머니의 상태가 회복가능성이나 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래서 최후의 임종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나는 미리 어떤 예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어떤 미신적인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께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최소한 병상 곁에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싶었다. 나는 어디에선가 보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산소호흡기를 쓰는 경우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버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신지 4일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먼 길을 떠나고 말았으니, 내가 자책해야 할 것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의학적 도구에 신뢰를 보낸 나의 우둔하고 퇴보된 나의 생각인 것 같다.

⁶⁴ “To watch the equipment, when it reaches zero she will have died.”

병자 성사

형님 형수님께서 성당에 어머니의 병자성사를 부탁하기 위해 병상을 물러간 후, 나는 병상 옆에서 컴퓨터에 저장해 둔 기도의 말씀을 꺼내 읽어 드렸다.

어머니께서 오래 전 건강하셨을 때 성당의 레지오 단원 활동을 하셨다. 내가 카톨릭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구체적인 평신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활동하신 “레지오” 단체의 목적과 활동 내역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좋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다. 대학 때 제기동 성당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고 또 고객관계로 맺은 카톨릭 교우들을 통해 접한 일천한 경험에 불과하고, 카톨릭 교리나 다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이 크게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한다. 영어 기도문을 처음 접할 때 열심히 책을 읽었고, 또 이혜인수녀님 시집을 통해서 가까이하려고는 했고, 또 어려서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의 질문에 육군대장이 되겠다고 말한 것처럼 대학 때 정신적으로 방황하다가 가장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에서 신부의 길을 가겠다는 이를 수 없는 꿈을 꾸기도 한 적이 있지만, 나의 짧은 생각으로 보는 카톨릭은 오랜 전통 때문인지 뭔가 형식적인 면이 크게 비춰지고 또 성당의 “조직” 분위기에서 기인하는 인간관계의 문제-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종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선호하는 -즉 평등 의식보다는 권력 마인드가 기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유럽 카톨릭의 고색창연하고 웅장한 대성당을 여행자가 느끼는 경우에는 감탄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얽매이고 구속받고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지 못한 폐쇄적인 사회라는 느낌이 드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생각이 내게 들었다. 이걸 단지 내 느낌일 뿐이고 정리된 생각이 아님을 고백한다.

“레지오 마리아 공인교본 The Official Handbook of the Legion of Mary” 한국어 번역본이 천주교 성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⁶⁵ 어머니께서 레지오 단원 활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렵듯이 짐작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다음의 시에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보았네,

장미꽃에 어린 주님의 피를.
그 눈의 영광은 별빛 속에 영롱하고
순백의 영원 속에 그의 몸은 빛을 뿜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당신의 눈물이어.

나는 보았네.

꽃송이 송이 안에 주님의 얼굴,
천둥과 새소리도 당신 목소리.
바위엔 권능으로 당신 말씀 입히시고.

어딜 가도 느껴지는 당신 발자취.
고통의 심장 박동
바다 물결 일게 하고,

⁶⁵ <http://k-senatus.kr/main36.htm>.

온 세상 가시나무 주님 머리 찌르니
나무 하나하나마다 주님 지신 십자가일세.

-요셉 마리아 플랑켓⁶⁶

이 시는 어머니께서 평소 기도하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뜻에서 여기에 “빠뜨리치안 회 기도문”⁶⁷ 또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⁶⁸

“병자성사 The Catholic Sacrament of Anointing of the Sick”란 무엇인가?

성당 신부님께서 어머니의 병상을 방문하시어 어머니를 위한 병자 성사를 집전하셨다. 성당 신부님께서 성당 사무장과 여러 평신도 봉사회원분들과 함께 오셔서 병자성사를 집전하셨다. 교회와 성직자, 평신도 모두는 병자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최후의 그날 나는 다른 경과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어머니 병상을 지키고 있었고, 다급한 생각에 기도문을 읽고 있었다. 신부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 드리는 성사를 보고서 어머니께서는 더욱 평화롭고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기도문을 펼쳐 보니 천주교의

⁶⁶ I see His Blood upon the Rose
I SEE his blood upon the rose
And in the stars the glory of his eyes,
His body gleams amid eternal snows,
His tears fall from the skies.

I see his face in every flower;
The thunder and the singing of the birds
Are but his voice—and carven by his power
Rocks are his written words.

All pathways by his feet are worn,
His strong heart stirs the ever-beating sea,
His crown of thorns is twined with every thorn,
His cross is every tree.

Joseph Mary Plunkett (1887–1916).

⁶⁷ “레지오 마리아 공인교본”, 가톨릭 출판사, 2000. 536쪽.

⁶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주님, ...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오며, 또한 주님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다가가려 하나이다. 저희가 가톨릭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로써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저 한 사람의 방심이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케 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저희에게 내려 주신 짐이 비록 무겁지만, 영광임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인내하게 하소서. 저희가 어떤 인간의 무리인지, 또한 저희 본성이 얼마나 게으른지 잘 아옵기에, 저희는 주님께 저희의 두 어깨를 바치기에도 합당치 않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보다는, 저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어, 불완전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불러 써 주심을 또한 잘 알고 있나이다. 이에 저희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기도 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합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풍부하게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도록 해주소서. 이 길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강생과,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얻어 주신 은총의 열매를, 온 세상이 받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옵니다. 주님, 그토록 크신 당신의 노고와 수난이, 저희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문 양식이 잘 정리되어 있다. 나는 성공회 교회를 다녔고, 초교파주의적이고 통합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 천주교에 대한 거리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편이다. 나는 천주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각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어머니께서 평소 쓰셨던 가톨릭 기도문 책을 통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병자성사를 집전하셨던 것 같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오안나 교우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아멘.”⁶⁹⁷⁰

어머니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가톨릭 예식서대로 다음과 같은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것 같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선종하는 은혜를 주시어,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영원한 천상 행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⁷¹

병자성사에 대해서 가톨릭 병자 성사 예식서에 들어 있는 설명문을 인용하여 간단하게 적어본다. 병자성사란 병, 사고, 노쇠 등으로 죽음에 임박한 신자에게 축성된 성유를 바르며 병자의 회복을 바라고 신앙을 견고케 하는 일곱 성사종의 하나에 속한다. 병자성사는 죽음의 준비이면서 영원한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성사이다.⁷² ⁷³

성직자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은사를 받는 권위는 성경에서 확인된다.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장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유를 바르며 치유의 기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만약 죄를 범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지은 것을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통함을 보면서 기도의 위대한 힘이 확인됩니다.”(야고보 5:14-16)⁷⁴

개신교와 가톨릭 신도 사이에 병자성사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⁷⁵, 가톨릭 예식서를 찾아 읽어 보고서 교회법 Canon law에 대한 소개의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한다.⁷⁶

병자성사 예식

⁶⁹ 천주교, 가톨릭 주요 기도문, “병자를 위한 기도문” 중에서.

⁷⁰ Prayer For Those Close to Death, “Lord Jesus Christ, As You stood by the bed of good Saint Joseph and gently led him home to heaven, so shepherd every soul about to die to a paradise of perfect peace. Let the tears we shed upon their passing stand witness to our love for them and the depth of our thanksgiving for the gift of their lives and the grace of a good death. For You are Lord, forever and ever. Amen.” <http://www.ewtn.com/Devotionals/prayers/PrayerForLife.htm>.

⁷¹ 가톨릭, 선종기도문.

⁷² “rite of departure from this life into the next life with God.” 노자성체路資聖體·Viaticum, 병자 성사 예식서 제7장 245번 참조.

⁷³ 교황청에서 병자성사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교황청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ww.vatican.va/archive/ccc_css/archive/catechism/p2s2c2a5.htm

⁷⁴ “Is anyone among you sick? Let him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let them pray over him, anointing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one who is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he will be forgiven.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has great power as it is working.” (ESV, James 5:14-16.)

⁷⁵ “The last rites are meant to prepare the dying person's soul for death, by providing absolution for sins by penance, sacramental grace and prayers for the relief of suffering through anointing, and the final administration of the Eucharist, known as “Viaticum,” which is Latin for “provision for the journey.”

⁷⁶ 가톨릭 “사목”, <http://samok.cbck.or.kr/content/PrintArticle.asp?idx=1794>.

1. 성사 집전 준비

2. 개회식

① 사제는 병자와 거기 있는 모든 이에게 인사한 다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성수를 병자와 그 방에 뿌린다.

② 그 다음에 사제는 거기 있는 모든 이에게 훈시한다.

3. 참회

고해성사가 없으면 참회식을 거행한다.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모두 함께 고백의 기도를 바친다.

4. 성경 낭독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나 사제 자신이 성경을 낭독한다.

5. 호칭기도와 안수⁷⁷

① 호칭기도는 병자성사 집전 전이나 후에 할 수도 있다.

② 호칭기도 다음에 사제는 아무 말없이 병자에게 안수한다.

6. 성유 축성

① 예식 중에 사제가 성유를 축성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서 기름을 축성한다.

② 이미 축성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의 기도를 바친다.

7. 도유 (기름油을 바른다塗- 기름을 부은다 anointing oil)

① 사제는 성유를 가지고 병자의 이마와 두 손에 바르며 다음 기도를 한 번만 외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 아멘.”

② 그 다음에 예식서에 있는 기도를 바친다.

8. 폐회식과 병자의 영성체

① 사제는 주의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한다.

② 병자가 영성체를 하려고 하면 주의 기도 다음에 병자 영성체 예식 때와 같이 하면 된다.

③ 병자성사 예식은 사제의 강복으로 끝맺는다.⁷⁸

⁷⁷ “호칭기도”의 영어는 “The Litany of the Saints”.

⁷⁸ 카톨릭 “사목”, <http://samok.cbck.or.kr/content/PrintArticle.asp?idx=1794>. 병자성사 예식서 64-79항)

임종의 징후를 미리 아는 법

임종의 징후는 식욕 상실로 스스로 식사하기를 멈출 때라고 나는 평소 알고 있었다. 내가 어머니의 임종 징후를 살피는 것에 실패한 까닭은 바로 이런 나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병문안 갔을 때 어머니께선 쇠고기국물 있는 밥을 당신의 손으로 드실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심했다. 그런데 그 후 영양보호사가 떠먹여 주는 공양의 상태를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언제부터 그것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게 자세히 말해 주지 않았다. 나는 식사를 환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손수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임종 직전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또 하나 임박한 임종의 사전 징후는 물이나 음료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때인 것 같다. 내가 병문안을 가면 항상 첫째가 음료수를 어머니께 들이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선 한 번도 음료수를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머니하고 마지막 대화한 그 날 어머니께서 음료수를 드시지 않았다. 음식 식사의 변화 이전에는 다른 것에 어떤 관심을 더 이상 보이지 않은 것 같은 데 이 때는 음식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상태 이전인 것 같다. 이를 보면 정신이 육체를 움직인다는 것인지 육체와 정신의 상호관계가 조금은 모호해지는 생각이 든다.

임종을 확인하는 방법

병상 옆의 모니터에 “경고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고음이 자주 울리자 간호사가 다른 모니터로 바뀌버렸다. 내가 물었다. 위중한 신호가 아닌가요? 그러자 간호사와 의사는 위급한 순간의 신호는 심장박동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할 때라고 대답했다. 나는 간호사들의 대처에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었고, 그저 지켜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어머니 발을 마사지해드리고 손발을 붙잡고 기도문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내가 병상 옆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자 산소 포화도는 20 이하로 떨어졌고, 맥박 (심장박동수) 수치는 43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고, 모니터의 그래프는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삼일 전에 모니터의 경고음이 자주 울리자 간호사가 경고음이 없는 다른 모니터로 바꾸었다. 경고음이 자주 울리면 옆 환자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임을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나는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호흡이 정지된 것이 보이자 나는 간호사를 급히 불렀다. 간호사는 급히 혈압을 재었는지 아니면 바로 가슴에 심장을 체크하였는지 나는 당황해서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의사를 급히 불렀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다. 잠시 후 의사는 죽음의 판정을 내렸다. 간호사는 진료부에 공식적인 기록을 적느라고 무척 바쁜 것 같았다. 과장법을 써서 말한다면 간호사는 하루 종일 일지 등에 기록을 적어 내려가는 글씨 받아쓰기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숨이 산소마스크에 더 이상 서리가 끼지 않게 어렵듯이 보였다.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의 예전에 임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숨을 임종자의 코 위에 놓아 숨이 멎었는지를 아니면 아직 호흡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나는 이제껏 임종의 순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손발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차갑다”는 정도의 지식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한 것은 병상의 모니터 밖이었고 나는 그것을 자주 쳐다 보고만 있었다. 의학이 고도로 발전된 오늘날 모든 것은 기계가 미리 예측해 준다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임종의 순간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거의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의 최후의 순

간 나는 나도 모르게 “어머니, 천국 가시는 길에 어머니, 편안히 가세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최후의 모습인지를 그 때 나는 알지 못하고서 그저 직감적인 본능으로 어머니 머리 위로 내 얼굴을 들이대고 “어머니, 편안히 가세요”라는 말을 다시 한번 건넸다. 이 말이 어머니께서 육신의 두 귀로써 들은 마지막의 말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어머니께 보낸 마지막 작별의 인사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병상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과 가슴의 호흡 모습을 살피니 정지된 상태로 보였다. 어머니의 왼쪽 눈은 완전히 감기었고, 오른쪽 눈은 거의 감기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눈을 어머니 얼굴쪽에 더 가까이해서 가슴 쪽에서 얼굴위쪽으로 쳐들어보니 눈을 살피니 동공이 확대되고 안구는 정지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의 죽음의 마지막 상태가 어디에서 끝나지는 아직도 완전한 합의 consensus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정지되는 순간 또는 폐가 정지되는 순간을 심폐사라고 부르며 이 때를 죽음으로 판정하는데 반해, 불교에서는 배꼽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했고, 아직도 논란이 큰 부분이기도 한 뇌사의 기준이 있음을 보라. 또 어떤 의사는 안구의 상태로써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람은 눈이 완전히 감기는 순간이 “숨을 거둔” 것보다 더 정확한 죽음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렇게 꽉 쥐었던 손마디가 축 늘어졌고 가지런히 퍼졌다. 그러나 심장이 정지한 후에도 왼손과는 달리 오른손은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얼굴은 평온함이 가득했고, 전체적으로 평화로웠다. 사람의 시신은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속설을 믿었는데 그것은 틀렸다는 것을 나는 인식하게 되었다. 왼손과 오른손의 온도차이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손발의 차가움의 정도로 임종의 신호를 발견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을 놓는 순간은 평화로워진다는 속설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평화로운 죽음 앞에서 나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더 정확히 느낌을 말하면,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I did not cry, because I still did not realize the magnitude of my loss.”⁷⁹

어려서 먼 시장을 갈 때 같이 따라 나서려던 마음에서 어머니를 붙잡던 모습처럼 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Oh, no! You’re not going to make my mother away” 또는 대개 딸들이 “엄마, 가면 안돼, 엄마 가지 마”라고 울며 흐느끼는 걱정적인 모습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 극한 상황을 참아내는 나의 훈련된 모습이었을까? 슬픔에 겨운 나의 울음과 눈물은 영안실로 안치 된 후 한 참 후에야 쏟아졌다.

⁷⁹ Isabele Allende, “When Parent die”, at 15.

의사에 의해서 죽음의 판정이 정식으로 내려졌다. 나는 어머님 수시에 대한 외경심과 예우를 우선 순위에 두고 간호사하고 대화를 하고 난 후 가족들에게 어머님의 운명 사실을 알렸다. 얼마 후 산소호흡기가 제거되었다. 산소호흡기가 제거되는 순간 이 때부터 내가 갑자기 당황해지기 시작했다.

“사례편람”의 “초종 初終” 의례에서, “병이 중하면 정침으로 옮기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이 때 속광 屬纊이라고 하여 숨을 코에 얹어 숨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절명하면 모두 곡한다.”고 설명한다. 사랑한 부모가 운명하면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러나 나는, 나는 격한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면 참고 또 참았다. 어머니의 경우 이순신 장군처럼 전투 상황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인 상황이기에는 나는 어머니께서 운명하신 사실을 침착하게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극한 상황을 참아내는 나의 훈련된 모습이었을까? 이순신장군이 적탄에 맞아 절명하는 순간에 “곡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생각했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장면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戰方急, 慎勿言我死"이라는 유언이다. “난중잡록”에 이순신 장군이 적탄에 맞아 운명하는 최후를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장군의 곁에 함께 있던 조카 이완과 아들 회가 "망극한 일"이라며 군사들이 죽음의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일이라고 죽음과 전투 상황을 염려하는 설명이 나온다. “戰方急, 慎勿言我死”이란 말을 최초로 글로써 기록한 사료로는 1604년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확인된다. 안방준이 1627년 편찬한 “노량기사”에서 묘사되는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장면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부하 송희립이 왜군이 쏜 조총의 탄환에 맞는 것을 보고 놀라 일어나다가 자신 또한 가슴에 왜군이 쏜 조총의 탄환을 맞았는데, 이에 배 위의 군사들이 장군이 총알을 맞았다고 고함을 지르자 송희립이 곡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장군의 갑옷을 대신 걸치고 전투 지휘를 계속 했다고 설명한다.⁸⁰ 당시 시각은 아직 동이 흰히 트기 전 신 새벽이었고, 장군의 유고시 지휘계통이 즉시 대체될 수 없는 전투 함정의 급박한 상황에서 전투 지휘를 장군의 조카 이완이 맡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순간에 남긴 말은 직접화법이 아니라 간접화법(이순신 장군이 한자어로 “戰方急 慎勿言我死”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이고, 또 그 말을 기록한 사람도 자기가 직접 들은 말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전투함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대신 기록한 “전문 증거 hearsay”에 해당한다. 최후의 장면에 대한 이론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료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곡소리는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유명한 영국의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의 상황처럼, 극한상황에서 인지상정의 슬픔을 극복해 내고, 각자

80 안방준, “은봉야사별록 隱峰野史別錄” 중 “노량기사”, “賊已知希立所在。乃束丸齊放。丸中甲冑。橫犯額骨。希立僕地幾絕。左右告公曰。宋某中丸。公大驚起立。丸中腋下。船上驚連曰。使道中丸。希立聞之。乃起坐。則幸賴額破。而不犯腦漿。以此厲氣。流血被面。衣前盡濕。乃裂衣裹額。卽上將座。則公已氣絕。子薈將哭。希立令將佐數人扶持。掩口止哭。解公甲冑。以紅氈裹尸。又裹以草蓆。乃着其甲冑。掩坐蓆上。代執旗鼓。促戰益急。賊船大敗。大炮所破。鉤引所沈。不計其數。餘賊引遁。追奔至外洋而還。遂發喪。各船皆痛哭。都督亦哭曰。擬還天朝。當以此君忠勇。告于天子前。今乃至此。惜哉惜哉。倭橋賊陣。不待東賊合戰。徑自遁去云” 송희립이 적탄을 이마에 맞아서 갑판 위에 쓰러져 기절하게 되었다. 이순신장군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고 그도 또한 적탄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린 송희립은 옷을 찢어 이마 상처를 동여매고 앉으려 하니, 이순신의 아들인 회가 곡음을 하는지라, 송희립이 손으로 그의 입을 막고, 이순신의 갑옷을 풀어 그 시신 위에 얹어 놓게 하고, 이순신을 대신하여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면서 전투를 독려하니, 왜군은 대패하고 익사한 왜군은 무수히 많았다. 왜군이 바다 멀리 도망쳤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장군의 죽음이 알려졌고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다....”

의 임무를 완수해 냈고, 전투를 승리한 후에야 비로소 장군의 죽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장례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 중 죽음을 맞이한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라는 유언이 어머니의 운명을 맞이한 상황의 나에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나는 억누를 길 없는 상실의 분노와 격한 슬픔을 참고 또 참았다. 이제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절망하며 느끼는 나의 무능력 그리고 어머니는 날 살렸는데 나는 어머니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나의 자책감⁸¹은 맥베드의 세수대야를 밤새워 동원해도 결코 씻어 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격한 슬픔에 겨운 나의 울음은 영안실로 안치된 후 한 참 뒤에야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⁸¹ 자책감 guilt의 심정은 임종 환자 자신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도 가장 크고 아프게 느끼는 감정일 것 같다. "Guilt is perhaps the most painful companion of death.", Kubler-Ross, "On Death and Dying", 1969.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주제를 과연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을 제시한 퀴블러-로스 Kübler-Ross 의 성명에 들어 있는 옴라우트 ü 스펠링이 시사해주듯 퀴블러-로스는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었다. 그녀는 독일의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하여 이론을 구성하였다. 퀴블러-로스는 1926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78세로 2004년 생을 마감했다. 퀴블러-로스는 4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로 “죽음의 전문가”, “죽음의 여의사”라는 호칭을 받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없는 죽음에 대한 연구가 과연 가능한가? 그녀는 임종환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즉 환자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구성하였지만, 그 후 체계적인 임상 연구 자료로써 이론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한 단점이 따른다.⁸²

- ① 5 단계 stages가 존재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임상적인 연구로 입증되지 않았다.
- ②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1-5 단계까지를 일정하게 거쳐갔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
- ③ 단계 이론을 구성한 연구 방법론적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한 사람에 의해 시행된 정신분석학적 인터뷰 자료가 같은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있다. 200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에 의존하여 구성한 이론이기에 보통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일반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제기된다.

인터뷰 방법 자체가 갖고 있는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퀴블러-로스는 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환자들의 생각이나 고민, 근심, 소망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가 인터뷰하는 간호사나 의사에게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닌 왜곡된 경우가 나타남을 추측할 수 있다.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자신, 의료진, 성직자, 가족들에게 일관된 반응과 태도를 보인다고 확신하기 힘들다. 그리고 관찰자의 해석 영역에서도 애로점이 나타난다. 환자들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화 도중 비언어적인 교감 같은 것 예컨대, “한숨이나 눈물, 미소, 손짓, 공허한 표정, 놀란듯한 눈빛, 손을 뺐는 것 같은 행동들이다. 그러한 몸짓들은 때로는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⁸³

- ④ 사실적인 기술 description과 이상적인 대처 prescription의 구분이나 그 경계점이 명확하지 않다.
- ⑤ 5 단계설은 임종에 임하는 개인적인 특성과 삶의 완전성 totality of the person's life 측면을 간과하고, 평화로운 죽음 peaceful death 이라는 이상형을 단언하는 것 같다.
- ⑥ 개인이 처한 환경과 자원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찰스 코르 Corr는 죽음의 5단계설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임종 환자들이 모두 정해진 과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과 특성차가 존재한다고 보고서 이러한 역동성을 고려하여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1993년). 그는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는 ① 육체적인 안녕 (육체적 고통 경감) ② 심리적인 안정

82 참고로, “죽음학”을 상업성 측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예컨대 장의사 등 관련 “D 산업”계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라. Ron Rosenbaum, “Dead Like Her: How Elisabeth Kübler-Ross went around the bend”, http://www.slate.com/articles/arts/culturebox/2004/09/dead_like_her.html

83 퀴블러-로스, 293..

(심리적 불안감을 안정감을 확보) ③ 사회적 관계 지속(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을 소중하게 지속) ④ 영적 성장(죽음을 넘어선 죽음의 의미 발견 노력) 이러한 부분에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앞 둔 환자들 약 200명을 인터뷰하여 이론을 구성하였는데(1969년)⁸⁴ 이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첫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알 수 없는 임종의 단계에서의 심리적인 변화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여 80년대까지 유력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그리고 이 5단계 이론에서 정식으로 명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 5단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희망 hope”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다.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미지의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는 퀴블러-로스의 이론은 임종하는 환자에 대해서 돌봄과 살핌 communicational interaction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내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society's sensitivity를 제고해 준 긍정적인 역할이 인정된다. 퀴블러-로스 이론의 등장은 이론에 대한 임상적인 입증 여부는 차치하고, 임종 환자에 대한 대화와 상담 능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론의 기여도가 크다고 여겨진다.

심리적 단계적 변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죽음의 5단계 이론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에 대한 심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단계적 이론 stage theory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종 환자 자신이 아닌 그의 가족이나 친지 등 관계인의 죽음으로 인해 애도와 슬픔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 변화를 설명하는 영역에도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을 수용하거나 적용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임종 환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겪는 애도와 슬픔의 반응은 임종 환자의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거나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죽은 자와 산 자(유족)의 사별 심리에 대한 과정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애도와 슬픔의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이 이 부분에서도 수용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하기는 힘들 것 같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봉사하는 이론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조만간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면, 임종 상태에서의 심리 변화에 대한 걱정보다, 어머니 사후 문제, 예컨대 어머니의 산소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모실 것인가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했다.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영국의 시인 존 키츠가 남긴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는 시가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길 때,
나의 펜이 넘쳐나는 생각을 수확하기 전에
.... 그대 다시 보지 못하리라 느껴지고
분별없는 사랑의 마술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는 광막한 세계의
해변에 외로이 서서 생각에 잠깁니다.
사랑과 명예가 허무한 것이 될 때까지.”⁸⁵

84 퀴블러-로스, 66.

85 “When I have fears that I may cease to be
Before my pen has gleaned my teeming brain,

퀴블러-로스 죽음의 5단계 이론이 주는 혜택

내가 좀 더 빨리 죽음의 5단계 이론을 알았다더라면?

왜 평소에 병문안이라도 자주 드리지 못했는가? - 그 이유와 회한

내가 병문안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해져서 얼마 사실 날이 크게 남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서 내가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최소한 책 한 두 권을 꼭 완성하여 보여드리겠다는 나의 사적인 다짐을 실현시키고자 한 나만의 맹세 때문이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위급한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위급하게 급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 크게 당황해서 즉 “공황 (패닉 panic) 상태”에 빠져버린다거나, 또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 판단 착오를 일으키거나, 또는 위험 신호에 대한 판단 착오를 하거나, 또는 “자신만의 다른 일에 너무 파묻혀 있을 경우 preoccupied by own concerns” 등의 여러 이유들이 있는 것 같다. 나의 경우 이러한 이유들이 모두 해당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내가 어머니 살아 생전에 내가 계획한 일 중에 하나라도 빨리 끝내서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 나의 지나친 과욕이 컸던 것 같다.

퀴블러-로스가 4단계 우울증 단계에 접어든 임종환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상실감을 이겨내고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준비적 우울증”에 빠져 드는데 이 경우에는 그저 말없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하면서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대로, 병문안이라도 자주 하여 병상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누군가 옛 성현의 지혜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임종환자를 곁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르침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만약 내가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을 이해하였고, 또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도 조금이라고 갖추고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막심하다.

이제 떠나가야 할 때

“말을 넘어선 침묵의 단계에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는 용기와 사랑을 지닌 사람들은 그 순간이 전혀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오직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는 평화로운 순간임을 깨닫게 된다.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별이 스러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광활한 하늘에서 반짝이던 수백만 개의 별 중 하나가 짧은 순간, 끝없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죽어가는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일은 인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함을 생각하게 한다. 그 일은 우리 자신의 유한함, 생명의 유한함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저마다 독창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류 역사의 한 울로 우리 자신을 엮어 넣는다.”⁸⁶

That I shall never look upon thee more,
Never have relish in the faery power
Of unreflecting love!;—then on the shore
Of the wide world I stand alone, and think.
Till Love and Fame to nothingness do sink.”

⁸⁶ 퀴블러-로스, 434-435.

병원은 왜 가족 면회를 제한하는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가족들의 면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꼭 의학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다. 그 이유 하나는 병실에는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한 환자의 병세와 그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다른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원은 가급적이면 그 영향을 줄이려고 할 것에 있을 것이다. 특히 죽음이라는 최대의 위기 순간을 겪는 병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법 제도와 의료 현실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의사들은 만약의 의료사고에 인해서 환자 가족들로부터 의료소송을 당할 지 모른다는 의사로서의 책임의식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불법행위법 torts 분야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체계보다 훨씬 넓다. 의사들은 중환자실이나 임종환자 병실에 변호사들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직계 가족들의 면회마저 제한하는 병원의 현실 사정을 고려하면 그렇다. 중환자실이나 임종환자병실은 위기 순간이니 만큼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할 잠재성이 매우 높다. 제 아무리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다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테고 따라서 책임의 원인을 투사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말하지 않는가? 특히 요즈음같이 “죽음은 정복과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환자가족들은 죽음의 순간에서 설령 의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눈에 비치는 의료진들의 태도는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직업적으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는 병원과 의사들의 태도와 단 한번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 가족의 심정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간의 심리적인 입장의 차이는 분명 간격이 클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 퀴블로-로스가 말한 대로, 제아무리 노화에 따른 자연사라고 해도,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격하게 들고 또 죽음이 자신의 잘못 탓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회한과 자책감에서 밀려오는 극도의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슬픔이 혹시나 의료진에게 투사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인 병원과 의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겠는가? 그러한 만약의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의료진은 위기의 순간에서 관계자들이 입회나 면회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다.

병원에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등에 당사자나 가족 보호자로서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그들에게서 불만족스런 감정을 갖기 십상이었다. 아마도 이런 나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일반화의 오류로 인해서 곤란하겠지만 관련 책이나 글을 읽어보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전문가로서 제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환자나 가족 보호자가 느끼는 심정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하더라도 그건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고, 환자들이 겪는 위기이며, 또 그런 상황은 직업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가족의 그것과는 달라서 서로간에 입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변호사도 면회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환자나 그 가족들이 의사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족스런 반응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하나의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병원의료진의 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지 나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논문을 몇 편 읽어보고 내린 나의 생각임을 밝힌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병원의 힘은 그 어떤 다른 단체나 조직 체계보다 막강하기 때문에 조만 간에 병원의 환자 면회 제한에 대해 획기적으로 전환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결론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간극의 존재와 입장 차이란 사람이 겪는 최대의 위기의 순간-죽음-을 다루는 병원을 지칭하고, 일반적인 진료에서 의사와 환자가 갖게 되는 생각과 죽음의 순간에서 갖게 되는 감정 사이

에 감정의 정도와 시각 차이에서 간극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위기의 순간과 평상시는 모든 것이 분명히 다르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사실을 논문 여러 편을 읽고 확인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 매우 많아서 조금 놀랐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요양병원의 간호사의 처우와 평판이 관계자 모두들에게 불만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한다면, 간호사들에 대한 불만과 평판이 낮은 이유는 간호사의 책임만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곳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책감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요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 것 같다. 죽음처럼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최대의 위기의 결과가 닥치면 그 결과에 자책감을 누구든지 피하려는 본능이 있다.⁸⁷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저승사자에 대한 인식, 그래서 “사자밥”을 피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에서 나올 것이다. 죽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을 회피하려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 또한 사람인 이상 제 아무리 직업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더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탓이나 어떤 미안한 감정 등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가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도덕적 책임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법적 의무를 부담시킬 수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직업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고도의 책임의무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중성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지킬 의무를 말하고 있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참조하라.⁸⁸

“제19조(임종과정의 환자 간호)

- ①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연명의료를 결정한 간호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이팅게일 선서문 Nightingale Pledge”

-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⁸⁹⁹⁰

⁸⁷ 로마서 5:12

⁸⁸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a22

⁸⁹ “Nightingale Pledge

• I solemnly pledge myself before God and in the presence of this assembly to pass my life in purity and to practice my profession faithfully.

• I will abstain from whatever is deleterious and mischievous and will not take or knowingly administer any harmful drug.

• I will do all in my power to elevate standard of my profession, and will hold in confidence all personal matters committed to my keeping, and all family affairs coming to my knowledge in the practice of my calling.

• With loyalty will I endeavor to aid the physician in his work and devote myself to the welfare of those committed to my care.”,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a22

⁹⁰ Anne Davis, “Ethical Dilemmas & Nursing Practice”, 5ed, Pearson34-36

생명을 “살리는 의사”와 “죽이는 의사”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아들 켈타우로스 (반인반마의 모습으로 로마 라틴어는 centaur 센토)는 키론 Chiron에게 의술을 배워서 죽은 사람도 살려냈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 키론 의사는 죽은 사람을 지팡이로 쳐서 살려냈다고 한다(Rod of Asclepius). 사람을 살리는 막대기는 동양으로 치면 한방의 침을 지칭할 것 같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뛰어난 의학 기술을 가진 의사 키론은 막상 자신의 죽음은 구하지 못했다.⁹¹ 그리고 센토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 등 워낙 능력이 뛰어나자 왕인 아버지가 아들임에도 죽여 버렸다. 누군가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은 오히려 무서워한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불멸이 아니라 유한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신은 뛰어난 인간을 질투한다고 하지 않나? 아무튼 의사의 상징은 왕이나 판사들만이 쓰는 봉(막대기)에다 지혜와 기술을 상징하는 뱀이 둘러싼 모습을 상징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는 또 다른 신의 심부름꾼을 상징하는 케리케이온과 혼동하기 쉽다. 저승사자는 두 마리의 뱀이 날개 달린 황금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고, 의사 키론(아스클레피오스)은 날개 없는 지팡이를 한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군대 병과 표시 표장으로 의무병과는 지팡이에 뱀 두 마리가 서로 감고 있는 형상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의사는 그만큼 기술이 뱀처럼 뛰어나야 함을 상징하겠지만, 의사는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중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 속담에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병 주고 약 주는 의사?

그와 같이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하다가는 죽일 수도 있는 존재이기에 그건 이중의 뱀의 모습은 의학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 같다. 제우스 신이 기술이 뛰어난 의사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줘도 비난 받는 것이 의사의 운명인데 하물며 사람이 죽어나갈 때는 말해 무엇하랴!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데 왜 비난 받는다는 건가? 그것은 연명치료 등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학 기술의 혜택을 받을 경우 의료비용이 천문학적 액수로 치솟기 때문이다. 의사는 죽은 사람을 살려도 비난 받고 (높은 의료비용 문제로), 죽어나가도 비난 받는다 (요즘과 같은 의학기술이 고도의 발전한 시대에서 한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 것은 의사의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여기므로). 이를 볼 때 과연 의사는 뱀처럼 기술과 지혜가 뛰어나야 하고, 그런 의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안락사의 경우는 의사는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죽이는 의사”가 되기도 하지 않는가. 삶과 죽음이 그러하듯이,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다.



여기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 보고자 한다. 장기 이식 수술 부분에서도 적용될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법률 개정으로 대형 병원이 장례식장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의사의 전문가 직업 윤리 책임 윤리 통제 관리 부분을 영미국과는 그 체제를 달리하고 있고 크게 부족한 부분임을 볼 때 Freakonomics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한다. “Freakonomics”에서의 설명을 간

⁹¹ 동양에서 명의를 상징하는 의사는 “편작”이고, “편작도 자기의 명은 구하지 못했다”.

략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전문가가 당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맞는 생각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면 그들이 하는 일이 워낙 어렵고 복잡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 지 알기 어렵거나 또는 도대체 먼지 모를 사실에 의존한다. 그들 정보에 감히 도전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의 전문성에 놀라고 만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만약 당신의 의사가 심장동맥성형술이 심장마비를 막는데 관계가 없다는 최신의 연구 결과를 알고도 당신에게 심장동맥성형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릴 경우에 그 자신이나 동료의사가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는 의도로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대학병원 심장병치료 전문의가 뉴욕 타임즈에 말한 기사를 인용한다면, 의사들도 차 판매원이나 장의사나 펀드매니저들과 똑같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심장병전문 의이고 당신에게 추천해주는 내과 의사가 있다고 할 때 당신이 내과 의사에게 그러한 수술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환자를 당신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나타내주는 또 다른 1996년 의학논문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소재하는 산부인과의 제왕절개수술비율이 출산율이 높은 지역보다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병원이 어려울 경우 의사들은 더 비싼 수술절차를 밟으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밑받침 한다.”⁹²

⁹² 밀줄 강조는 필자가 한 것임. Steven Levitt and Stephen Dubner, “Cracking the Real Estate Code”, Wired Issue 13, May 2005; Eric Lichtblau, Realtors Agree to Stop Blocking Web Listings, NYT, May 28, 2008.

치유의 힘- 진실의 위대한 힘-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찾기 어렵다”는 속담이 있는데, 약용으로 쓰일만한 약초 캐기란 산삼 찾는 것의 반 이상은 될 정도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산과 들에 나가보면 썩부쟁이, 백도라지, 구절초 등을 캐기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어머니께서 자주 들렸던 한약방 중에 포항한의원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강장보약 먹기 위해서 한의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방 치료의 효능을 얻기 위해서 한의원 단골 고객이기도 했다.

익모초는 초여름에 피는 연한 붉은색 꽃인데, 어머니를 이롭게 하는 풀이라는 뜻의 益母草라는 말에서 알다시피, 어머니 즉 여성에게 좋다는 한방 약재로 잘 알려져 있다. 익모초는 혈액 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어서 여성들의 생리통, 생리불순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한방 약재로 쓰이기에 익모초는 어머니에게 이로운 풀임에 틀림없다. 익모초는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은데 이를 보면 선현들의 삶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

나는 좀처럼 TV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내가 본 적이 없는 드라마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겠지만 편의상 다른 사람의 전언에 따라서 잠시 몇 줄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조선 18대 왕 정조 시대 홍국영은 당시 정권의 실세인데 그의 누이동생(왕의 후궁)이 뱃속의 아이를 사산하게 되고, 이 일로 왕비는 사산의 원인 제공자로 누명을 뒤집어 쓴다. 그런데 이 누명을 익모초가 밝혀주게 된다는 이야기다. 왕의 후궁이 평소 익모초를 달인 보약을 오랫동안 복용해 왔고, 또 뱃속의 아이를 사산했다는 날 직전까지 마셨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익모초는 자궁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어서 임신 중에는 복용을 금지하는 한방 탕재에 속한다. 이러한 익모초에 대한 한방 지식에 기초하여, 왕의 후궁이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또 아이를 사산했다는 것도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한다. 음모, 조작, 배신은 중앙정치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일어나는 인간 본성에 속하는 영역 같은데, 익모초는 한방약재의 효능뿐만 아니라 범죄의 비밀까지 풀어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른다. 지식의 힘으로 거짓을 밝혀내고 자유를 되찾게 된 것이다.

진실의 위대한 힘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최고 권력을 놓고 암투가 벌어지는 궁정정치에서 진실이 통할까? 사람들 셋만 모이면 남 얘기하는 것이 인간본성이라고 한다. 한자 간사스러운 姦자의 어원, “3인성호”의 4자성어의 유래를 알면 수궁이 간다. 사람이 3인 이상 복수가 모여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남의 것을 찬탈하려고 배반과 음모가 꾸며지고,, 적반하장하고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무고죄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탐욕이 넘치고 욕망이 불타오르면 사람들의 눈은 뒤집혀지는 경우까지 벌어진다. 아담과 이브 단 둘이 사는 세상은 어디까지나 무릉도원이고 낙원이었다. 그런데 대리인인 뱀사자가 제3자가 나타나면서 낙원은 범죄로 얼룩지고 고통이 수반되는 타락의 장소로 변해 버렸다. 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분석하면서,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덩블과 산더미 같이 쌓인 서로의 반박 증거 속에서 상호모순점을 발견해 내고 그들의 허점과 급소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 그럼 과연 진실의 힘은 위대할까? 전쟁과도 같은 극한상황에서는 진실을 찾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진실의 힘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기초한다. 그런데 전쟁터와 같은 극한적인 싸움에서 무엇이 진실이겠는가? 권력을 놓고 싸우는 조직 사회는 제로섬 게임의 전투장에 다름 아닐 것이다. 궁정정치는 더욱

그러하다. 세 사람 이상이 모인 인간 조직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공정정치의 축소판이라고 볼 때, 진실은 바로 권력이다. 수많은 조작된 “주초위왕” 사건으로 사약을 받은 조광조부터 수많은 사초사건과 사화를 들춰보면, 조직 권력에서는 진실의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법정에서 진실의 위대한 힘을 말하는 것은 이념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진실의 힘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는 최고권력을 넘어설 수 있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200년 전의 공정정치의 암투 속에서 진실이 밝혀질 법정이 존재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그것은 오로지 최고 권력의 향배에 달려 있던 권력의 문제였다. 정보의 유통과 해석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최고권력자이었기 때문이다. 후궁이 익모초를 달여서 만든 한방탕재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보아라?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던가? 더 큰 파이, 더 큰 권력, 더 큰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간에 벌이는 이전투구의 장에서 실수이든 고의이든 “떨어지는” 정보가 “진실”이라는 권위와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이 필요하다. 누가 그 해석을 하는가? 그것은 권력이 한다. 여기에서 권력과 권위의 근원을 캐는 문제는 결국 순환론적이 되고 만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하더니 언제부턴가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진실인가? 권력의 장에서 진실을 찾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또한 숨어 있는 실세 보이지 않는 힘에 조종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진실이 없다. 다만 살아남아야 하고, 그것만이 위대한 진실이다.

죽음과 부모의 묘지와 풍수지리설의 가장 결정적인 흠결은 무엇인가?

퀴블러-로스의 5단계 이론은 환자가 죽음을 맞이 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환자가 살아 생전에 잘해야 것을 시사해 주는 이론으로 이해하고 나는 여기서 풍수지리설에 집착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논자들의 논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로서 풍수지리의 취약점을 지적하고자 죽음과 풍수지리에 대한 간략한 비평을 추가하고자 한다.

죽음과 부모의 묘지와 풍수지리설의 가장 결정적인 흠결은 무엇인가?

죽음과 부모의 묘지와 풍수지리설

이렇듯 죽음을 예감한 시인의 생각이 깊은 행동에는 미치지 못하여 내가 기껏해야 생각을 한 정도는 2-3년 전부터에 등산을 가더라도 어머니 사후 못자리를 쓸만한 명당 자리 등은 어디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데에 관심이 갔다. 누구나 다 아는 풍수지리설에 솔깃하여 풍수에 관한 책이나 월간지에 나오는 최창조 등의 풍수지리연구가들의 기사들을 들춰 읽어 보기도 했다. 등산을 갈 때마다 먼 산에 비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 어머니 생각이 불쑥 떠오르곤 했다. 모악산 자락의 금계포란형 가야산 등산을 여러 번 가보고 흥선대원군이 가야사라는 절을 불살라 없애버리고 그 절터에다 부친인 남연군의 무덤을 이장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문화 유산으로까지 격상되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남연군 묘 근처에는 지관으로 유명했던 지관 손석우의 묘도 자리잡고 있다. 명당 자리라고 소문이 나서인지 남연군 묘소 주변에는 무덤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무덤 수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상호배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명당 자리라면 홀로 있어야 편안할 것이 아닌가? 만약 다른 무덤들과 지기를 공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서로 함께 나눌 수 없는 배타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하물며 명당 자리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겠는가? 만약 명당자리라고 하면서 다른 무덤들과는 함께 위치한다면 최소한 풍수지리설이 말하는 “지기”가 영향을 잘못 미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물과 바람은 흐르는 것이므로 이 무덤에서 저 무덤까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또 풍수지리설이 가진 허점에 대해서는 주류 경제학인 “합리적 기대가설”을 설명하는 경제학 콩트 하나로 써도 쉽게 파악된다. 경제원론 시간에 웃자고 꺼내는 이야기 중 잘 아려진 하나를 들어본다. 경제학과 신입생이 “길거리에 떨어진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웠다”고 교수한테 말하니, 합리적 경제학을 신봉하는 경제학 교수가 반응하길, 길거리에서 100달러 지폐를 주울 수는 법이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만약 길거리에 100달러 지폐가 떨어져 있다면 누군가가 벌써 주어 갔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이해타산적인 동물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경제학의 기본 모델을 깊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경제학 기초 시간에 종종 드는 콩트로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명당자리가 따로 있다면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는가?

합리적 기대 가설에 대한 위의 콩트로 알 수 있듯이, 만약 풍수지리설이 정말 타당한 근거가 있는 이론이라면, 명당 자리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명당 자리가 있었다면, 7천만이 살아가는 이 작

은 한반도에 유구한 5천년 역사 동안 누군가가 벌써 발견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명당 자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명풍수나 지관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명풍수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줄 것이며, 또 명당 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풍수지리설이 타당하게 검증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유명했던 풍수가들은 왜 여지껏 그 좋은 명당자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묘지에 관한 다툼인 산송 山訟이 존재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역사적 인물인 윤관의 묘역을 두고서 약 400년간이나 분쟁을 치른 윤씨와 심씨 후손간의 산송 다툼인데 신문보도를 확인하면 이 사건은 2007년에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산송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권세가가 남의 묘역을 강제로 뺏는 능장 勒葬도 있었고, 또 남의 묘역에 몰래 묘지를 쓰는 투장 偷葬, 도장 盜葬, 암장 暗葬의 풍습에 대해서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물론 내가 “혼불” 소설을 읽었다고 해서 거기에 묘사되는 사람들의 행동들에 이해가 간다는 말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정도에 나의 이해는 그친다. 내가 생각하기에, 풍수지리설에 매료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단순한 자기이익의 추구만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동기 이론을 논할 수는 없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나, 우주 천체의 움직이는 법칙은 알아내도 사람의 투기성은 알지 못했다고 후회한 천체물리학의 대부 뉴턴의 사례에서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인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좀더 복잡 미묘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나은 견해인 것 같다.

남연군묘 근처에 보존 전시되고 있는 그의 상여 등을 살펴 보면서 곧 닥칠지도 모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했고, 허공에 뜬 이상적인 환타지에 다름 아니었다. 왜냐면 설령 좋은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구입할만한 경제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또 좋다는 자리는 이미 다 차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땅이 협소하고 매우 작은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불현듯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떠오를 때면,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임종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지를 점검해서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었지, 쓸데 없이 한가하게 무슨 풍수지리설이나 찾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대신 그 시간에 어머니의 병상을 찾아 뵙고, 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작은 일에 힘썼어야 했다. 임종 환자를 정성껏 보살피는 일은 큰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또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왜 그렇게 쉬운 일도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위기에 대한 나의 대처방법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이나 묘지 선정 등은 사후의 일이고, 사실 그런 일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에 해당한다. “내 묘지 앞에 서서, 울지 말라. 나는 무덤 속에 들어 누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잠든 것도 아니다.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는 시 구절이 말해주듯이, 어머니의 영혼은 무덤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고 나서 무덤 속에 영혼이 머무르고 있다는 이 집트 고대인들의 생각은 미신만큼 분명히 옳지 못한 생각이었다.

풍수지리설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 요소-동기감응론

유럽에서도 로렌스가 말한 것처럼 땅의 기운-지령-이 있다는 개념이 존재한다. 나무 숲이 국민적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들판 평야가 국민적 이미지를 주는 프랑스, 알프스 산이 전국민적 화신에 가까운 스위스에서 나타나는 개념일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카네티가 파악한 바대로, 섬나라인 영국은 바다와 배와 선장이 국민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땅의 기운”에 대한 개

넘은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다. 영국의 바다/배/선장의 국민적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의 “천/지/인”의 개념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산과 숲에 대해 중요한 일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것 같다.

풍수지리는 핵심은 땅 속에는 만물을 움직이는 기가 있다는 생각이다. “기氣”는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상형문자로서 원래 갑골문의 어원은 쌀미자가 들어 있는 기자는 밥 속의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에서 본떴다고 한다. 초겨울 땅에서 서리김이 피어나는 모습도 그와 비슷하니까 땅 속에 어떤 기운이 있다는 생각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땅이 갖는 기운을 지기라고 말하고 이 지기가 삼라만상의 성장소멸을 관장한다고 보는 것이 풍수지리의 기본인 것 같다. 서릿발처럼 기가 하늘에 오르면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다시 땅 속으로 흐르며 그렇게 자연순환의 과정을 볼 때 그런 생각은 크게 어렵지 않게 수긍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사를 지내는 것은 이런 생기를 받아들이는 일이며, 이로 인하여 자식들이 조상의 음덕을 받는다는 생각에 있다. 땅과 물과 바람과 햇빛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무기체와 유기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런데 생기를 모여있는 특정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 속에 생기가 모이는 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그곳의 지기가 후손에게 전달되어 후손이 번창한다는 하고, 풍수지리의 전문가인 지관이 하는 일은 이런 지기가 모인 곳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큰 전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보자. 사람이 죽게 되면 “혼백”이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소멸되고, 백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즉 양기는 하늘에서 사라지고 음기는 땅 속에 들어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과 동양의 풍수지리의 근원적 사고이다. 혼은 사라지는데 비해 백은 땅에 갇힌 육신을 관장하는데 이 백이 지기를 타고 후손에게 서로 동기 감응하여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보는 설명하는 것이 “동기감응론”의 줄기이다. 하지만 양기는 하늘에서 사라지는데 반해서 음기는 땅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증명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어렵다. 또 과학적으로 보거나 생물학적, 물리학, 화학 등 기초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보면, 유기체가 무기체인 땅에 들어가면 유기체는 분해되고 유기체로 남아 있지 않다. 육신은 썩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육신은 “부활”한다는 생각이 훨씬 더 타당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지구의 속내를 보면 땅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도 움직인다. 동기감응론이 민간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학 이론이 등장하기 전 “플로지스톤” 이론이 맹우를 떨치던 이유하고 비슷하고, 따라서 풍수사상의 동기감응론은 과학적 근거와는 전혀 맥이 닿지 않는 과거의 죽은 생각에 불과할 것이다.

침묵이다
침묵으로 침묵으로 이어지는 세월,
세월 위로 바람이 분다

바람은 지나가면서
적막한 노래를 부른다
듣는 사람도 없는 세월 위에
노래만 남아 쌓인다

남아 쌓인 노래 위에 눈이 내린다
내린 눈은, 기쁨과 슬픔,
인간이 살다 간 자리를
하얗게 덮는다

덮은 눈 속에서
겨울은 기쁨과 슬픔을 가려 내어
인간이 남긴 기쁨과 슬픔으로
봄을 준비한다

묵묵히.

-조병화, “겨울”

영원한 침묵

배 안의 물은 반짝거리지만
큰 바다의 물은 캄캄합니다.
작은 진실은 분명한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위대한 진실에는 위대한 침묵만이 흐릅니다.⁹³

⁹³ 타고르, “길 잃은 새들”, 176장.

THE water in a vessel is sparkling; the water in the sea is dark. / The small truth has words that are clear; the great truth has great silence.

“Love never disappears for death is a non-event.
I have merely retired to the room next door.
You and I are the same; what we were for each other, we still are.
Speak to me as you always have, do not use a different tone, do not be sad.
Continue to laugh at what made us laugh.
Smile and think of me.
Life means what it has always meant.
The link is not severed.
Why should I be out of your soul if I am out of your sight?
I will wait for you, I am not here, but just on the other side of this path.
You see, all is well.”

Your Mother Is Always With You.

Your Mother is always with you. She's the whisper of the leaves as you walk down the street. She's the smell of certain foods you remember, flowers you pick and perfume that she wore. She's the cool hand on your brow when you're not feeling well. She's your breath in the air on a cold winter's day. She is the sound of the rain that lulls you to sleep. The colors of a rainbow. She is Christmas morning. Your Mother lives inside your laughter. And she's crystallized in every tear drop. A mother shows every emotion, happiness, sadness, fear, jealousy, love, hate, anger, helplessness, excitement, joy, sorrow, and all the while, hoping and praying you will only know the good feelings in life. She's the place you came from. She is your first home, and she's the map you follow with every step you take. She's your first love, your first friend, even your first enemy. But nothing on earth can separate you. Not time, not space....not even death! “